

독립정신 70호

2013년 7,8월호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신한 청년단의 독립운동

특별기획
근대 동아시아 민족모순의 폭발
- 재만 조선인의 수난

특별기고
지정학적 시각으로 본 한반도의
현실과 그 대응방향



(2012년 7월 제 8기 독립정신 답사단)

2012년 7월 21일

제8기 독립정신 답사단 '호가장보위전 항일열사기념비' 앞에서

신명을 다바쳐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적극 분투하셨던
조선의용군의 향취가 머문 그 자리에서...



自由江山

翰西南宮櫛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 기초 다져 놓고
청초호(靑草湖) 자유수(自由水)를
영(嶺) 너머로 실어 넘쳐
민주의 자유 강산을
이뤄 놓고 보리라

■ 작 자 : 翰西南宮櫛

■ 해 설 :

왕조의 몰락을 지켜보아야 했던 한 청년이 서재필박사가 주재했던 독립협회 기관지 독립신문 영문판 발행에 투신, 장차 애국언론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지식인이 있었으니, 한서 남궁억(1863~1939) 선생이다.

한서는 1898년 황성신문을 창간하여 사장과 주필을 겸하며 자주독립사상과 민권사상 고취에 힘을 다 쏟고 아울러 조선의 상징인 무궁화꽃 심기 운동에 생애를 걸었다.

설악산 돌을 날라 기우는 나라의 주춧돌을 다져놓겠다는 말씀과 동해 푸른바다 자유수로 조선 팔도 메마른 산하를 고루 적시겠다는 한서 남궁억 선생의 시훈이 참으로 아름답고 눈부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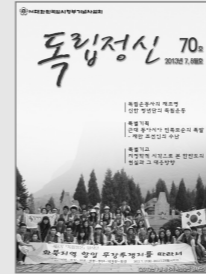
■ 선 자 : 흥 일 선

독립정신

2013 7*8

통권 70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용, 곽태원, 이상준, 이일선, 김용수, 안효진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04 권두언
 우리는 장장 60년을
 비평화 상태로 지냈다
 | 임재경



08 특별기획
 근대 동아시아 민족모순의 폭발
 | 윤휘탁



16 특별기고
 지정학적으로 본 한반도
 | 맹강현

27 독립운동사의 재조명_네번째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 강준식

34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_네번째
 김시현과 권애라
 | 김영방

42 100년 편지
 To. 허은 할머니께
 | 조현기

45 영화읽기
 영화 <빛을 향한 노스탤지어>,
 현재와 만나는 과거에 대한 향수
 | 이두희

49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다섯번째
 일제의 여공 착취에 항거한
 오뚜기 “이효정”
 | 이윤옥

51 역사 한토막
 | 편집부

52 임정서거
 저항인 함석헌 평전
 만주국
 어느 상인 독립군 이야기
 1866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서간도에 들꽃 피다
 | 편집부

62 독립정신 이모저모



우리는 장장 60년을 비평화 상태로 지냈다



임재경
前 한겨레 신문 부사장

우리에게 1953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3년간의 동족 살육전 6.25가 끝난 해다. 잠깐!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멈춘 것’이라 써야 정확한 표현이다. 2013년 7월 27일은 6.25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중단(정전 혹은 휴전)된지 60년이다. 동아시아의 대표적 회년(回年, jubilee)으로 꼽히는 60주년을 경사스런 일이 아니라 몹서리 나는 재앙과 연결해야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가.

전쟁이 아닌 전쟁상태, 즉 정전을 두 세대에 해당하는 60년 동안 겪어야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날의 지구위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에 속한다. 장기간 미해결의 분쟁지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 인종과 신교의 차이에 연유하는 것이 특징이며 정치 체제와 이념상의 문제로 비평화 전쟁 상태를 10년 이상 유지하는 지역은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족분단에 이은 60년간의 비평화(정전)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나머지 보통시민은 자신의 삶을 근본에서 위태롭게 만드는 비정상적 현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심하게 비유하면 공기, 햇빛, 바람처럼 일시적인 기상변화, 이를테면 악취-강우-폭풍의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민족 공동체의 생존과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외부조건을 까맣게 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말하여 부끄럽기 이룰데 없다.

한반도의 비평화상태가 우리의 특별한 관심사로 주목된 것은 몇해 전에 발생한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때다. 최근의 일로는 2013년 초봄 북의 핵실험(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과 한미 군사훈련(타격 능력 시위)을 놓고 남북이 험악한 말 싸움 장면들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런 국면의 관심은 비평화상태가 전쟁상태로 전환될 것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모아질뿐 비평화상태(정전협정)의 성격, 특히 그 현재적 변용(變容, variation)이 어떤 것인가에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1953년부터 장장 60년간 계속된 정전체제의 실질 내용을 이모저모로 짚어 보거나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과는 다르다.

일반적 논의 방식대로라면 정전체제의 종식 여부는 어디까지나 정전 체제를 형성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들인, 북한-중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다. 행인지 불행인지 60년전 한국은 협정체결에 참여하지 아니 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정전 협정문의 서명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위-사활이 걸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바로 한국인 까닭에 형식논리를 내세워 비평화의 근원을 우리 자신이 외면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에 곁들여 한마디 더 보탠다면 60년 전(1953년) 정전협정 체결할 당시 왜 한국정부가 서명행위를 포기 혹은 거부했는가를 장황하게 따지는 것 역시 지금 이 순간에는 한가로운 것이다.

단도직입하여 60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비평화 정전체제를 안정된 평화체제로 바꿀 수는 없느냐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 과제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전쟁을 일삼아 무고한 인명을 해치고 땀 흘려 마련한 생존자료와 생활수단을 약탈 또는 파괴하는 악행을 되풀이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천년 이상 단일 민족국가로 존속해 온 한반도가 계몽-합리가 지배하는 근대 세계에서 60년 간 비평화 ‘준 전시상태’로 모자라 더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근거로 원용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다. “인간 늑대론(homo homini lupus)”은 근대의 문턱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삼았던 서구 강대국가들의 자기정당화를 위해 써먹고 내버린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협스럽게하는 비평화체제(정전협정)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는 결의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가를 포함한 한국의 중간계층 다수는 보통시민들의 정전협정에 대한 단순한 무관심과는 달리 정전이라는 외형 속에 자리잡은 실질 ‘콘텐츠’에 유의하며 남북 문제를 조망한다. ‘무관심층’과는 상당히 구별된다 하더라도 정전협정 60년이 내포한 전쟁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후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가 <1972년

남북공동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선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 10.4 합의>등의 남북 언약들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남북한 정부가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인적 교류와 물자 교환을 성사시킨 까닭에 정전 협정의 비평화 요소들을 무의미 하게 만들지 않았나라 믿고 싶은 심리상태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만하다. 이러한 시각은 남북관계가 엄존하는 <1953년 정전협정 문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측면을 주목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남북한 정부가 6.25전쟁의 수행자였던 강대국들(미국, 소련, 중국등)의 현상 유지(status quo) 노선을 앞질러 나갔다는 의미다.


정전 60년 비평화 시대에 특기할 일은 시점(時點)과 시각에 따라 변화와 불변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병존했고 지금도 병존하는 것이다. 위의 '추월 론' 은 변화를 중시하는 사례의 하나다. 정전 협정하의 한반도에는 접촉-교류라는 내부변화와 함께 소련 권 붕괴에 따른 냉전 종식과 중국의 G2 부상으로 표현되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전협정의 소멸될 운명을 예고하는 결정적 변수인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 변화의 추이가 단기적 혹은 중기적 평화(전쟁가능성의 극소)를 담보하느냐 묻는다면 그 답변을 간략하게 'yes(그렇소)'라 하기란 힘들다. 적어도 정전 협정이 실존하는 한에는 그렇다.

전쟁의 재발 개연성을 안고 있는 정전 협정의 대칭 국면은 전쟁 종결 협정(강화조약 혹은 평화조약)이다. 평화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도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마침내 전쟁상태로 전이하는 경우가 근대에 들어와서도 무수히 존재했지만 중단된 상태의 전쟁의 원상복귀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가 전쟁을 반대하는 정치적 쟁점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면 후자에는 전쟁반대와 평화 회귀요구가 정치 쟁점화 하지 못하는 체약이 작용한다. 이것은 결코 언어의 유희가 아니다.

1953년 7월의 6.25전쟁 정전협정체결 이후 60년간 전쟁 당사자였던 남북한은 일관되게 내부 통치의 큰 흐름은 전쟁 대비 태세였다. 자유민주주의 '쇼윈도우'로 자처했던 한국에서 전쟁수행을 본업으로 하는 군인들이 통치기구를 직접 장악하거나 대내외 중요정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한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고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할 때 이에 저항하는 민중을 억압하는 화두를 '준 전시'라는 해묵은 표현이 장식하지 않았던가.

한편 북한의 이른바 '선군정치'가 어떤 원인의 산물이건 간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무

후무한 슬로건이다. 사회주의를 포방하면서 공공연하게 인민과 당을 제쳐놓고 군을 앞자리에 세우겠다는 것은 반세기 이상 존속된 전쟁대비태세(정전협정 체제)와 무관치 아니하다고 믿는다. '선군정치'라는 슬로건이 통치 방식으로 그치지 않고 북한의 자원배분을 군사분야 위주로 외곡한 것 역시 부인하지 못할 현실이다.

우리는 장장 60년을 비평화 상태로 살아 왔다. 전쟁중단 협정을 전쟁종결협정 즉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보자. 



근대 동아시아 민족모순의 폭발 : 재만 조선인의 수난*1)



윤 휘 탁
한경대 교양학부 교수

1) 만주국 수립 전 중(中)·조(朝) 민족관계와 조선인의 수난

만주국이 수립되기 전인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인과 조선인은 커다란 마찰 없이 지내고 있었다. 중국인은 나라를 잃고 만주로 이산한 조선인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표하며서도, 조선인들을 가난뱅이·떠돌이·매춘업자·마약 매매업자, 사기·협잡을 일삼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만주의 골칫거리'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일부 중국인 중에는 황무지를 수전(水田)으로 바꾸어 중국인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는 자들도 있기는 했다.

1) 이 글은 「제1편 만주국 형성의 인적·민족적 토양」, 「제4편 '만주국인'의 민족 관계와 민족 인식」 및 「제5편 '북한민족국가'의 파탄」, 윤휘탁,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북한민족국가』(혜안, 2013), 49~66쪽, 355~393쪽, 441~446쪽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인의 비호 하에 조선인들의 만주 유입이 증가하고 수전이 확대되자, 발농사를 주로 하는 중국인의 영농 상황과 노동 여건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일부 조선인이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도처에서 중국인과 갈등을 야기하자,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조선인들도 대부분 무일푼이다 보니 중국인 지주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었다.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생활 습속과 관습이 달라서 편견·오해·대립·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 소원하게 지내고 있었다.

중국인은 만주의 개척이 중국, 특히 남방의 인구 과밀 상황을 완화하고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따라서 중국인은 조선인이 만주로 이주해오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일부 조선인들의 반일 운동 혹은 조선인의 존재 자체가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이나 간섭을 불러일으켜 외교 관계상 자신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여겼다.

당시 조선인이 어느 곳에 정착해 촌락을 형성하면 반드시 일본 영사관이나 소속 경관이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그 뒤를 따랐다. 마적(馬賊)이 횡행하는 만주의 오지예까지 조선인이 정착하게 되면서 일본 당국은 조선인 보호를 명목으로 기존의 철도부속지 밖에까지 군대를 주둔시키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인은 조선인이 일본 신민으로서 일본의 만주 점령에 이용될 것이라고 여겼으며, 조선인을 '일본의 침략 앞잡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일부 조선인은 철도 지대와 관동주 조계(租界)에서 일본 관헌의 묵계 하에 아편을 밀매하고 있었지만, 치외법권을 지니고 있어서 중국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중국 관헌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불평등 조약과 치외법권의 철폐를 바라고 있던 중국인은, 일본 세력 하에 치외법권을 지닌 조선인이 중국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주권 국가의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중국인은 원래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한 우월감을 지니고 있어서 주변 민족을 하대시하고 있었는데, 당시 재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천하고 문화가 낮은 민족으로서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신복(臣僕)이었다가 일본의 신복으로 전락된 망국민이라고 인식하면서 조선인에 대해 동정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중국인은 조선인이 만주에까지 와서 자신들을 귀찮게 굴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혐오하고 있었다.

가령 중국의 『大公報』(天津版)에서는 조선인들을 "의복이 남루하고 삐쩍 마른" 존재로 묘사하고 있었다. 이 신문에서는 재만 조선인 가운데 소수만이 열심히 경작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상이나 좌판, 창기(娼妓), 금지 물품(마약 등)의 영업·판매업에 종사하



거나 떠돌이들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중국인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사기·협잡을 일삼는 민족이라 하여 경멸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의 심복’ 노릇을 하면서도 ‘일본의 스파이 노릇’도 하는 부류로 폄하하고 있었다. 국민당 중앙선전부에서도 조선인들을 야만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폭력적이며 일본의 위세를 빌어 소작료 지급을 미루거나 안 내기도 하고 토지를 차지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는, 질이 나쁜 민족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1931년 7월에 발생한 만보산사건과 그 여파로 조선에서 야기된 화교(華僑)배척사건은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조선에서의 화교배척사건은 만주에서 중국 관현으로부터 탄압과 차별을 받았던 조선인들의 상처와 아픈 기억, 그것들의 확산과 중국인에 대한 반감, 화교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 그리고 일본 식민 당국의 대륙 침략 의도에서 비롯된 식민지 언론의 만보산사건의 과장·왜곡 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아주(亞洲)문화협회에서는 조선인이 망국민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거나 일본에게 이용당해 동일한 피압박 민족인 중국인을 죽이려 든다고 하여 조선인의 행태에 대해 분노와 한탄을 표출하고 있었다.

더욱이 1931년 9월 만주사변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자, 조선인을 일본의 침략 앞잡이로 여기면서 혐오하던 중국 관민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분노를 표시했다. 이것은 만주사변 발발 직후 조선인에 대한 중국 관민들의 보복이나 화풀이로 이어졌다. 실제로 만주사변 직후 중국의 구국군(救國軍), 지방의 반일의용군, 패잔병, 비적, 준경찰 조직인 자위단에서 파면된 자들 그리고 중국인 군중이 각지에서 조선인을 습격했다. 토비(土匪)들은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했다. 이들이 저지른 폭행에 의해 조선인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구동북군(舊東北軍) 병사들 가운데 상당수도 조선인이 일본을 끌어 들였다고 여겨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공작 보고서에 따르면, 반일적인 중국인들 사이에선 “일본을 치려면 먼저 조선인을 죽여야 한다!”거나 “조선인은 모두 일본의 주구(走狗)이니 조선인을 만나면 일본인과 함께 죽여 버리자!”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이나 군인의 보호를 받을 수 없던 오지의 조선인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주변으로 피난하였는데, 그 수는 1932년 3월 9일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4,084호, 1만 9,760명에 달했다.

2) 만주국 붕괴 전후의 중·조 민족관계와 조선인의 수난

한편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고 만주의 통치권을 장악하자,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박해는 표면적으로 사라졌다.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가운데 농촌에 거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 지주나 만선척식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소작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극도의 열악한 주거·교육·위생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추위와 굶주림·질병에 허덕이다가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그들은 수전 농장 건설의 불합리성을 비롯하여 물이나 가옥 임차료 혹은 개간지의 무단 회수, 문화적 이질감 등을 둘러싸고 중국인 농민들과 민족적 갈등이나 마찰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인들이 중국인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 논농사를 짓는 등 소작농이 급증하자, 중국인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소작지가 조선인에게 잠식당하면서 점차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대다수 농촌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었고 마음의 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피차간에 남남처럼 때로는 서로 멀리하거나 비아냥거리면서 다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7년부터 만주국 정부 및 만주척식공사에서는 이민 용지 획득이라는 명분하에 중국인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매수하고 그 땅을 일본인 개척민이나 조선인 집단 이민자들에게 불하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조선인=일본의 앞잡이’라는 중국인의 인식을 더욱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되어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분노·증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만주국의 조선인 농민들은 일본 당국의 의지에 따라 ‘제국 신민’으로 불려 보호를 받기도 했고, ‘조선징(朝鮮人)’이라고 불려 염가로 토지를 강제 몰수당하기도 하는 등 항상 불안정한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 농민은 일본 당국을 신뢰할 수도, 대항할 수도,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었다. 게다가 일본 식민 당국은 헐값으로 중국인의 토지를 강제 매수한 뒤 조선인 집단 이민자들에게 대여하기도 했다.

만주국에서는 식량이나 석탄 등의 물자 배급도 민족별로 차별했다. 1941년부터 만주국에서는 물자의 통제 및 배급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원칙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일부 중국계 고관·자본가에게는 고급 식량이자 고가였던 미곡이, 나머지 중국계에게는 소맥분·고량미·소미(小米)·포미(包米) 등이 배급되었다. 배급은 일본인에게만 우선권이 주어졌다. 석탄의 품질 면에서도 일본인에게는 좋은 석탄이 배급되고 있었다. 같은 일본계인 조선인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배급 순서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다. 물자의 배급 과정에서 조선인이라고 하여 중국인보다 특별히 우대를 받았다고 할 만한 것은 별로 없었지만, 당시의 중국인 중



에는 조선인이 자신들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고 여겨 조선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만주국이 붕괴되고 만주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선인=일본 앞잡이’라는 중국인들의 조선인 인식은, 일본 식민 권력의 와해와 더불어 분노로 변했다.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 신민의 보호 세력’이 사라지자, 그동안 조선인에 대해 불만이나 증오심을 가졌던 중국인들, 특히 토비나 국민당 계열의 사람들 중에는 조선인이나 조선 마을을 습격하여 폭행·강간·약탈·살해 등을 자행한 경우가 많았다. 말 그대로 조선인에게 광복 직후의 만주사회는 난리판이었다. 그러한 상황 변화는 일본 식민 당국의 각종 정책 외에도 만주(국)에서 조선인들이 차지했던 위상과 역할, 식민 당국의 민족 이간 정책, 언어 및 문자 교류와 생활·풍속·습관상의 장애와 곤란에서 빚어진 각 민족 상호간의 편견과 다양한 갈등이 작용한 결과였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 가령 주허현(珠河縣) 허둥(河東)안전농촌에서는, 흥분한 중국인들 사이에 허둥 땅은 원래 중국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일본인들이 그것을 빼앗아 조선 농민들에게 준 것이니 응당 다시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중국인과 섞여 살던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 허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산골 마을에는 토비들이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그 곳에서 쫓겨났다. 광복 직후 쉐윈둥(謝文東)이 이끈 중국인 무장 집단은 조선인을 일본 통치 시기의 ‘2등 공민’이라 하여 조선인 마을을 습격해서 부락민 전체를 전멸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945년 11월 안전여우(安振有)의 토비들은 왕청현(王淸縣) 뤼즈꺼우(羅子溝)에서 조선인 청년 100여 명을 살해했다. 마시산(馬喜山)의 토비도 동북민주연군(東北民主聯軍) 지전원(指戰員) 280여 명과 군중 289명을 살해했는데, 이 중 조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45년 겨울 이종위(李忠玉) 등이 이끄는 토비는 어무현(額穆縣) 일대의 조선인 마을에서 재물을 약탈하고 제멋대로 살육을 했다. 1946년 초에는 어무현 일대의 조선인 200여 명이 토비들의 만행을 피해 소련군의 호위 하에 둔화현(敦化縣)으로 피난가다가 토비들의 습격을 받아 12명이 사망했다. 1945년 말부터 1946년 6~7월 사이 탕위(唐玉) 토비는 둔화현 난황리허툰(南黃泥河屯)에서 30여 명의 조선인 청년들을 붙잡아 그 중 5명을 총살했다. 그리고 조선인 가옥들로 쳐들어가 옷가지들을 약탈해갔다.

동년 5월 26일에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귀싱방(郭興幫) 토비 700여 명은 동안(東安, 지금의 密山)에서 하루 동안 조선인 수백 명을 학살한 ‘동안5·23참안’을 일으켰다. 무단

장시(牡丹江市) 부근의 조선인 촌락에서도 토비들에 의한 폭력과 살인 사건이 끊이지를 않았다. 1946년 5월 14일 왕샤오딩(王小丁)이 이끈 토비 200여 명이 빠다꺼우(八達溝)의 조선인 촌락을 습격해 촌장 등 4명을 총살하고 수십 명을 칼로 난자질하고 7만여 원의 금품과 천여 점의 의복, 자위단이 사용하는 무기 등을 모두 약탈해갔다. 1946년 8월 초 토비들은 조선인 마을 허난촌(河南村)을 습격해 13명을 사살하고 1명의 조선인 여성을 강간한 뒤 살해했다.

한편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일본인 앞잡이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국민당군도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패망 직후 국민당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만 중국인에 의해 조선인 176명이 사망했고 1,866명이 부상당했으며, 3,468명이 구금당했고 320명이 강간당했으며, 12만 8,085명이 모욕을 당했다. 1946년 국공내전 시기 조선인들이 공산당 측에 가담하자, 국민당군은 만주 각지에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을 저질렀다. 1946년 4~5월 공산당 지휘 하의 동북민주연군이 지린(吉林)과 창춘(長春)에서 전략상 후퇴를 하자, 창춘에 잠복해있던 국민당군은 이것을 계기로 조선인은 원래 ‘일본인의 앞잡이’이고 팔로군에 의지해 불화를 조장하고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리고 국민당군은 건달들을 선동해 조선인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축출하는 등 중·조 민족의 충돌을 부추겼다. 이 와중에 동북민주연군 소속 조선인 병사가 말다툼 끝에 한족 노인을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분노한 주변의 한족 군중이 창춘시내의 조선인에게 보복을 가해 당일 조선인 100명이 사망했고 300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동년 5월 23일에는 사복을 입은 국민당 특무요원의 인솔 하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팔로군을 수색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인을 색출해서 제멋대로 총을 쏘대었다. 이때 사살되거나 맞아죽은 40여 구의 조선인 시신이 소학교에서 발견되었다. 1946년 5월 27일 동북민주연군이 지린(吉林)에서 철수한 다음날 국민당군 제88사단이 시내로 들어와 “고려놈들은 모두 공산당, 팔로군이다!”라고 떠들면서 대대적으로 조선인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 가둔 뒤 노역을 시켰다.

조선인들이 입은 물적 피해도 엄청났다. 만주국 시기 조선인 농민이 경작하고 있던 자작농 창정지(創定地)·공지(公地)·개척 이민 용지 등은 모두 국민정부에 의해 ‘적위재단(敵僞財產)’으로 규정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인들은 1946년 4~9월 사이 중국 국민당 점령 지구에서만 7만 9,700여 ha의 토지를 빼앗겼고 토지 권리도 취득할 수 없었다.




〈광복 직후 재만 조선인의 인적 피해 상황〉

| | | | | | | | | | | | | |
|-------|-----------|----------|----|-----------|-----|-----|-----|----|----|----|-------------|-----|
| 遼寧省 | 瀋陽 | 營口 | 鞍山 | 遼陽 | 鐵嶺 | 開原 | 撫順 | 磐山 | | | 합계 | |
| 1946년 | 사망 | 44 | 4 | 8 | 2 | 5 | 7 | 2 | 3 | | 75 | |
| 8월① | 부상 | 63 | 24 | 200 | | 20 | 900 | 3 | 3 | | 1,213 | |
| 吉林省 | 四平 | 海龍 | 西安 | 長春 | 吉林 | 公主嶺 | 樺甸 | 九台 | 雙陽 | 伊通 | 합계 | |
| 1946년 | 사망 | 3 | 11 | 3 | 75 | | 2 | 7 | | | 101 | |
| 8월 ① | 부상 | | 59 | 10 | 237 | 289 | 6 | 11 | 20 | 15 | 6 | 653 |
| 吉林省 | 汪清 | 敦化 | 額穆 | 장춘 | 梅河口 | | | | | | 합계 | |
| 사망 ② | 700 여명 | 30 여명 | 12 | 440 여명 | 2 | | | | | | 1,200 여명 | |
| 부상 | | | | | | | | | | | | |
| 黑龍江省 | 牡丹江 | 東安 | 延壽 | | | | | | | | 합계 | |
| ③ | 사망 | 5 | 수백 | 15 | | | | | | | 수백 | |
| | 부상 | 수십 | | | | | | | | | | |
| 1947년 | | | | | | | | | | | | |
| ④ | 살상 | 2,042 | | | | | | | | | 2,042 | |

〈출전〉 ①은 寒國臨時政府駐華代表團東北總辦事處, 『東北接收地區韓僑被害調查表』(1946.8)에서 ; ②, ③은 孫春日, 『中國朝鮮族移民史』(中華書局, 2009), pp.639-651에서; ④는 『韓僑事務』1947年 第2期에서 산출.

당시 국민당군 점령지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만주 전체 조선인 인구의 6분의 1에 불과했고, 피해가 많았던 산간벽지에서의 피해 사례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인으로부터 인적 피해를 당한 조선인의 수는 훨씬 많았을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 서술한 사례들은 대부분 국공내전 초기인 1946년도의 상황인 점을 고려해보면, 국공내전이 본격화되고 국민당의 점령지가 확대되던 1947년도에는 국민당군의 점령지가 확대되었고 점령지에서는 공산군 색출이라는 명분 하에 더 많은 조선인들이 살상을 당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국공내전이 한창인 1947년에는 국민당군에 의해 조선인 8,468명이 체포되었으며 2,042명이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다.

하여튼 해방 직후 조선인들이 중국인 무력 집단(마적·토비·국민당군 등)으로부터 보복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그들이 만주사변 이전부터 나라 없는 백성으로 멸시와 구박, 증오를 받고 있었던 점, 일본 식민 당국의 이민 정책, 조선인을 앞잡이로 활용하면서 마치 조선인이 '2등 국민'인 것처럼 대우했던 일본의 민족 이간 정책, 이를 기회로 일부 조선인이 중국인을 멸시하는 일이 많았던 점, 일본의 식민 정책에 협조하여 그 앞잡이 역할을 자처했던 일부 조선인들의 잘못된 행태, 조선인 가운데 아편을 밀매하여 중국인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준 사람이 적지 않았던 점, 조선인 특유의 민족성과 귀속감 결여, 소외감에 따른 이방인(異邦人)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던 점 때문이었다.

결국 근대 시기 재만 조선인은 중국인과 일본인의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배개 민족' 혹은 주도적인 중·일 양 민족 진영 모두에 걸쳐 있던 '과계(跨界) 민족'으로서 이들 양자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완화시키고 때로는 이들 양자로부터 이용을 당하면서도 양자 모두로부터 비난과 멸시·탄압을 받았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인은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로부터의 '피해자'였지만, 일본을 등에 업고 중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가해자'이기도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본 한반도

- 오늘의 위기와 그 대응 방향



맹강현(孟康鉉)
북경대학 외교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해 그 역사의 전개가 피동화된 사례가 많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징검다리 지형의 반도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리한 세력이 또한 세계에 드물게도 모두 강대국으로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민족의 운명이 좌우된 일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지정학의 양대 개념인 ‘지리’와 ‘정치’, 또는 ‘공간’과 ‘권력’이 한반도에 적용되어 나타난 특성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20세기에 식민, 분단, 전쟁을 겪었으며, 21세기를 10년이나 넘긴 이 시점에서, 분단과 휴전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쟁 재발의 위험과 강대국 간섭의 소지는 여전하여, ‘숙명’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온 지정학적 과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검토하면서, 한국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조응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민족의 진로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을

가늠하고자 한다.

2. 지정학적 시각으로 본 한반도의 역사

지정학을 떠받치는 두 개념, 즉 ‘지리(공간)’와 ‘정치(권력)’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는 ‘반도’라는 지리 공간 특성 외에 4대강국이 둘러싼 정치권력 안에 끼어있는 형태이다. 즉 지리, 정치적으로 독특한 형태이며, 이러한 특성이 한반도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와 육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면서, 좁은 해협인 현해탄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이웃하고 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래 또 하나의 동아시아 국가로 등장한 미국의 세력권에 포섭되어,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 미, 일, 러 이 4대 강국의 이해가 부딪치고 있는 지점이다.

지리정치 시야는 미시(微視: 국부), 중시(中視: 지역), 거시(巨視: 세계)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반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미시 차원에서 육지 쪽 변경을 방위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중시 차원에서 대륙 패권(중국)에 순응하고, 그를 이용함으로써 해양 패권(일본)을 방어해 온 역사가 주류였다. 대륙은 해양에 비해, 한반도로 침입하기가 쉬우므로, 대륙에 대항하기보다 순응하는 것이 더 이로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져 사대주의를 낳았던 것이다.

그리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그 어느 한 쪽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다른 한 쪽으로 그 힘을 발산하려 하면, 먼저 한반도가 희생양이 되어 왔다. 조선시대를 예로 들면 왜란과 호란이 그 사례이며, 조선 건국에서 임진왜란 전까지(1392-1592), 병자호란 후부터 청일전쟁 전까지(1637-1895)의 두 차례 2백년은 대륙(중국)과 해양(일본)의 힘이 비교적 약화된 시기였다.

지정학 이론의 관점에서 보아 한반도는 육·해권(대륙·해양세력)의 충돌지역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buffer region)로 설명될 수 있으며, 스파이크먼(N. J.

1) 머헨(A.T.Mahan)이 19세기 말에 주장한 해권론은, 해양 거점 확보와 해군력의 우세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육권론은 심장지대(heartland)론을 주장한 매킨더(H.J.Mackinder)가 대표적이다. 그는 20세기 초에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륙 복판을 점령하면 유라시아 대륙, 나아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머헨의 해권론을 의식한 주장은 아니다. 한편 그의 심장지대론은 뒷날 스파이크먼이 주장한 주변지대론과 대조되었다. 이러한 육·해권론은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의 해양세력인 영국, 일본과 대륙세력인 독일, 러시아의 대립, 그리고 냉전시기의 미국, 일본과 소련, 중국의 대립을 해석하는 시각으로 활용된 바 있다.

Spykman)의 관점에 따라 세계의 주변지대(rimland)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²⁾

먼저 육·해권론의 시각에서 볼 때, 반도는 대륙세력에게나 해양세력에게 징검다리 또는 교두보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반도에 자리한 국가가 약소국일 경우, 강대 세력에게 휘둘리는 피동적인 역사를 이어왔다. 대륙·해양 세력 사이의 전쟁터가 되거나, 분할의 대상이 되거나, 어느 한 쪽에 서기를 강요당한다. 이 양대 세력은 상대방을 침략할 때 반도를 그들의 통로로 이용하려 하고, 상대를 통제하려할 때 이이제이(以夷制夷) 방략으로 반도를 이용하려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육·해권의 충돌은, 고려시대에 벌어진 몽골의 일본 침략에 한반도가 그 길목이 되면서 이끌려서 같이 참전한 사례나, 1592년에 발발한 임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이 한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 안에서 벌어지거나, 외세가 개입하여 가열된 충돌이었다. 임란 당시 일본이 정명가도(征明假道)라는 명분을 달았듯이, 한반도는 대륙 침략의 징검다리로 여겨졌으며, 일본은 당시 명(明)과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 조선8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남쪽 4도(전라, 경상, 충청, 강원지역)를 일본에게 넘기라고 제안하였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894년 7월, 영국 외상 김벌리(1st Earl of Kimberly)는 일본과 청(淸)이 조선을 분할하여 점령하라고 제안한 바 있고,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경쟁을 벌이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일본과 러시아는 북위 38도선 또는 39도선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 양분을 음모한 적이 있다.

그리고 육해 양대 세력은 그 충돌이 완화되는 평시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도모하였다.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아 자신들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거나, 분할함으로써 어느 한 쪽이나마 각각의 영향권 아래 두었던 것이다. 일본 패망 후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명분을 걸고 북위 38도선으로써 한반도를 양분하였으며, 이후 한국전쟁을 겪고서 그 휴전선이 국경선화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 대한 미국의 점령과 그 이후의 주둔, 그리고 서태

2) 스파이크먼이 말하는 '주변지대'는 서유럽, 남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에 이르는 대륙연해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사회의 조직화 정도가 비교적 높다. 그리고 해상 항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대이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자리하여, 해양강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침입하는 전초기지가 되거나, 대륙강국이 해양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됨으로써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스파이크먼의 주변지대론은 냉전기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지리정치 경쟁은 유라시대 주변지대를 둘러싸고 벌어졌으며, 미국의 억지전략은 소련이 이 지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평양 각 지점을 잇는 미국의 반공 방어선은 동북아 지리정치 구도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정립하던 구도가, 소련·중국·북한(북3각)과 미국·일본·한국(남3각)이 대결하는 구도로 변환된 것이다. 한국 전쟁을 통해 이러한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냉전이 끝난 뒤 비록 한중수교, 한러 수교는 이뤄졌으며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는 아직 성사되지 못한 상태로서 이러한 남3각, 북3각 구도는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남북한 분단 상태는 완충지대로서의 한반도가 어느 일방에 완전 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분단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대한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는 군사적 점령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미 냉전과 세력분할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세 물리력의 상륙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예측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었다.

3. 21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각축

한반도 주변의 대륙세력(중국·소련)과 해양세력(미국·일본)은 냉전기에 중소분열, 중미수교, 중일수교 등 육해를 넘나드는 세력균형 과정을 거쳤지만, 탈냉전기에도 미국의 헤게모니와 미일동맹이 견재함으로 인해서, 상하이협력기구(SCO)가 보여주듯 중러가 결합하여 미일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이다. 이 두 나라는 한국 전쟁에서 충돌하기도 했거니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남북한 각각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적대세력에 의해 통제되어 만주를 포함한 중국 동부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수가 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념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형적인 지리정치 시각으로서, 그 접경하는 북한 지역을 지키코자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본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인데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세력권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미국 세력권 하에 있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적 국경 접촉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와 지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 안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중국으로선 북한에 대해 가능한 한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완전히 화해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있겠지만, 중미 완전 화해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 육지로 닿아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에서 동란이 발생할 경우에 있을지도 모를 난민 유입을 우선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지역에까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도 지역을 둘러싼 영토·민족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여 한반도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을 수 있다.

중국 국가이익의 핵심은 주권 분리와 영토 분열을 막고,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발전을 지속시키는 것에 있다. 이러한 핵심이익이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그에 필요한 전략 공간을 필요로 하며, 주변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즉 중국은 그 국가의 이익 특히 안보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여 한반도 정세의 대변동을 인정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유라시아대륙 주변지대(rimland)를 둘러싸고 벌어졌으며, 당시 미국의 억지전략은 바로 소련의 영향권에 기반 한 것으로서 한반도는 바로 이 주변지대에 속하여 있다. 탈냉전 시기에도 미국의 억지전략은 여전히 유라시아 주변지대를 통제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동란, 네 차례의 국부전쟁(걸프전쟁, 코소보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간전쟁)을 이용하여, 유라시아대륙 안으로 부단히 그 영향권을 확대하여 왔다. 그리하여, 유라시아대륙 안에서 경쟁자의 공간을 압박함으로써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Z. Brzezinski)는, 미국의 급선무는 그 어떤 국가나 국가들이 유라시아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는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보기에, 유라시아대륙에서 미국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국가(또는 국가군)는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므로 통제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역량이며, 미국의 전략적 적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양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공간을 압박하고 있다. 서쪽에서는 동유럽 및 옛 소련 지역을 향해 나토를 확장시키고, 동쪽에선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 끝에 자리한 미국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대륙을 압박하는 전선에서 그 맨 앞에 있는 전초기지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 유지 전략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동북아 지리정치 경쟁에서, 과거에 주인공이자 적수였으나, 현재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여 부차적 위상에 머물러 있다. 러시아의 경우,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량이 소련 시기와 비교할 바 없이 뒤쳐져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전략 구도에서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대륙강국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 전략적 적수가 해양강국이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른 대륙강국, 즉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일본은 현재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해양강국으로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체제의 주요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는 은원(恩怨)이 점철된 나라이다. 역시 한반도와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이 있으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체제하에 남북한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일동맹은 여전히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선택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사태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군사대국화와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은 여전히 한민족의 경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4. 지정학적 시각으로 본 남북한 공간과 통일

현재 한국의 실제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은 한반도의 남쪽 부분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 교통이 막혀 있다. 그리고 좁은 국토는 선회(旋回)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완전 점령당하면, 즉 한 번 물러서면, 근거지 삼아 반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전초기지가 완충지대와 다른 점은, 완충지대란 인접한 강대국 사이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전초기지만 세계적 헤게모니 유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헤게모니 국가가 설치하는 육지 거점이란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전략은 미시 차원(양자관계 차원) 완충지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시 차원(지역 차원) 또는 거시 차원(세계 차원)의 패권 유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쪽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에 의한 생존 압박을 받고 있다. 역시 국토가 협

소하여, 한 번 물리적 점령을 당하면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더욱이 공간을 압도하는 첨단무기와 해군력, 공군력이 육지, 동해, 서해, 공중을 통해 포위할 경우 지구전을 벌이며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북쪽에서조차 적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국토의 뒷마당인 중국과의 우호는 절대 필요불가결하고, 유사시에 중국을 개입시켜 정권을 유지할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다. 김일성이 한국전쟁에서 불리해지자 먼저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요청한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엄한 국제적 현실에서 설사 동맹이라고 해도 무작정 신뢰할 수 없는 터에, 북한과 중국의 유대는 그리 튼튼하지 않다. 비록 북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렇듯 북한도 마냥 중국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 즉 중국과 미국, 그 각각과 거리를 두는 정책은 외교적으로 선회 가능한 공간을 넓혀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 개발로 귀결된 셈이다. 모든 것에서 약자인 나라가 정치적 강자가 되는 길은 핵무기 보유에 있을 수 있기에 북한이 핵보유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대국 위주의 국제정치에서 핵보유의 기득권만 인정하는 상황에서 핵보유 자체도 쉽지 않거니와, 제재와 고립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현재의 북한 핵 위기가 실증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은 아직까지 냉전시기 남3각, 북3각의 고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은 각각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완충지대 또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일본에 있어선 한국이 북한 위협을 앞에서 막아주는 완충지대이며, 미국에 있어선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이다. 이런 역할 구도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운을 개척하기엔 한계가 있음은 자명하다. 즉, 강대국이 놓는 국제정치의 체스 판에서 하나의 패로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겪을 수 있는 지정학적 현실이다.

남북한은 각각 다른 국가로서 그 사이에 국경을 두고 있으면서도,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통일할 필요성과 의지를 공유하는 모순된 관계이다. 군사분계선으로 갈라놓아 대결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소통해야만 하는 판문점의 회담장이 이러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는 비록 모순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적대적인 모순이며, 통일로 해소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모순이다.

그리고 분단 상태는 강대국에게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국제 역학의 평형이다. 한국전쟁 후에도 전쟁 전의 분단선으로 돌아간 것은 어느 일방의 승리나 패배를 회피한 강대국 타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민족의 단결이 자국에게 불리할 때 주변의 강국이 반드시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즉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은 주변강국이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어서 추진하겠지만, 만약 통일과정이나 통일된 한반도가 자국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고 개입할 기회가 있을 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강대국화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군 주둔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민족 입장에서는 분단 상태는 민족역량을 소모하게 하고 긴장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주범이다. 그런즉 민족 내부의 화해와 역량의 강화를 동시에 모색해야하면서도 통일이 주변강대국에게 불리함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다.

통일은 바로 주권 공간 자체의 확대를 통해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선회 공간 확대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분산됨으로 해서 흩어진 민족역량을 하나로 뭉치는 일이면서, 또 민족성원 내부의 갈등이 외세에 이용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원래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갖는 불리한 점에다 더 덧붙여진 분단 상태의 불리함을 일거에 해소하고자 하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통일은 장(場)의 확대를 통해, 력(力)을 증강하는 일이며, 동시에 이 합쳐진 내력으로써 외력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일이다.

또한, 분단이 이미 경계 지어진 상태라면 통일은 그 경계를 해소하는 일이다. 평화적 통일은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과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며, 철도, 도로 연결이나 인적, 물적 교류를 거쳐서 국경(군사분계선)을 허무는 공간 통합, 그리고 권력 통합, 나아가 같은 민족이며 같은 국민이라는 정체성(正體性) 통합으로써 완성되는 과제이다.

5.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그 대응 방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지정학적 판단은 정치(권력)의 눈으로 지리(공간)를 보는 것이지만, 그 지정학적 의의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특정 지역이 항상 고정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즉 지리의 중요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지정학적 의미란 어떤 국가의 정체성, 또는 국가의 전략적 시야에 따라 가변되는 것이다. 즉 시대와 그 국제정치 역학, 전략적 의지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지리정치의 본질은 정치이지 지리 관계 자체가 아니다. 어떤 국가나 민족의 지리정치 위상은 그 처한 지역에서의 정치적 문제로써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주변 강국의 국가이익 상충

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한반도에서 부딪힐 때 그 지정학적 가치가 부상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체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변수이지 숙명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즉 한민족이 스스로 화해함으로써 그 정치적 의미를 축소시켜서 강대국이 개입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가 남북이 대결하여 정치화할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의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지리정치가 보다 동태적으로 변하고 있다. 국제정치 행위가 지리적 요소 자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추세라는 뜻이다. 국경을 넘는 다양한 연계가 진행됨으로써, 국가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로 인해, 상호 견제의 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의 역량은 지리공간의 한계를 넘어 타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국가의 공간장악력과 대외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정치 또는 권력이 지리 또는 공간을 압도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볼 때, 지리적 요인만으로 지정학적 숙명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없다.

먼저 대외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선 주변 강대국, 특히 경제,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대외영향력을 최대한 상쇄시켜야 한다.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등 종합국력이 증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거시적 차원의 외교 공간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공간장악력 측면에서 보면 지리공간은 점점 인간의 역량에 장악되어 왔다. 즉, 근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빠르게,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지리공간을 장악하게 하였다. 즉, 고도, 속도, 정밀도, 강도 차원에서 지리가 장악되고 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첨단무기와 장비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핵무기는 최고의 강도를 보이는 위협성으로 인해 냉전 이래 지리정치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개별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기술력을 포함한 국력의 차이가 국가 사이의 역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한다.

위와 같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한국 또는 통일된 한반도의 대응전략을 설정해 보면, 첫째 외부환경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자체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주변 강대국 한 쪽과의 과도한 동맹을 피하고 보다 다자관계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통일된 한반도는 그 오래된 전통처럼, 불가피하게 어느 한 쪽의 강대국과 동맹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며, 한몽연합(한반도와 몽골의 국가연합) 등 강대국 어느 일방에 의지하지 않고도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양자관계의 틀은 또 다른 외부의 반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최선의 방안이 아니다.

그런즉 육해세력이 경쟁하는 주변지대(rimland), 또는 주변강대국 사이의 완충지대가 되

지 않도록 보다 중립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중국이 꺼려하지 않을만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중국으로선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계속 되거나 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미국 세력이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을 보는 상황을 원하지 않으므로, 통일 후에는 미국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 한 중립국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 강국의 역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즉, 주변 4강 가운데 어느 한 쪽이 급속도로 쇠퇴할 경우에는 그 사이의 전략공간을 파고들어야 한다. 브레진스키는 최근 저서에서, 미국이 쇠퇴할 경우 한국이 중국의 패권을 수용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고통스런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³⁾ 이는 앞서 언급한 바 대륙 패권(중국)에 순응함으로써 해양 패권(일본)을 방어해 왔던 근대 이전의 역사상(像)으로 돌아가거나, 감정의 골이 깊은 일본과 연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후퇴하는가, 또는 중국이 약화되는가 여부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의 남3각, 북3각 구도는, 만약 어떤 한 나라가 갑자기 붕괴하지 않는다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붕괴 국면에는 이 구도가 바뀔 것이므로, 역관계 차원에서 이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중립에 서서 균형자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다수 강대국의 이해가 걸린 지역에서 국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때는 어려운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자강(自強)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지리정치의 새로운 형태, 즉 력(力)의 우세로 장(場)을 극복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 호응하여, 공간장악력과 대외영향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동시에 강대국 사이의 역학 속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 평형점에 서면서 국가의 통일, 안보, 발전 등 국가적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지정학적 한계(‘장’의 숙명)를 상쇄시킬 수 있는 ‘력’(공간장악력과 대외영향력)을 증강함으로써 피동성을 극복하고 능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한국일보(인터넷판) 2012년 2월 10일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2/h2012021010244922510.htm>

6. 맺는 말

‘지정학적 숙명론’은 한반도를 강대국 판놀음에서 필요한 지리적 거점, 즉 하나의 패로서만 여기는 사고방식으로서 한민족 자체의 주도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 분단 상태는 육·해 세력이 그들의 국익에 따라 인위적으로 한민족의 이익을 농단한 결과이며 현재의 한민족을 피동에 처하게 한 원초적 근원이다. 그런즉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국가이익의 정치를 먼저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국 자신의 지혜와 자강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지리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반도가 강대세력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과학기술력이 충분히 지리를 압도하는 시대이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와 다자관계의 틀로 인해 보다 상호의존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대이다. 한국으로선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지리정치의 중심(重心)에 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Colin Flint, Introduction to Geopolitics.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2007

Agnew, John. Geopolitics: Re-visioning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1998

O’ Tuathail Gearoid & Simon Dalby, Rethinking geopoli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Geoffrey Parker, Geopolitics: past, present and future. The Continuum Publishing Company.1998(中文版〈地緣政治學：過去,現在和未來〉, 新華出版社, 2003年1月)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Zbigniew Brz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



강준식
동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 머리말

한국 민족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의 하나로 평가되는 3.1운동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이었을까?

혹자는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 등 내부적 요인을 꼽았고, 혹자는 고종황제의 독살설을 지적했으며, 혹자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강조했고, 혹자는 일본의 영자신문에 보도된 조선독립과 관계된 기사들이 동경유학생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요인들이 다 3.1운동의 직간접적인 배경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일제의 무단정치와 경제수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그 불만이 1919년 3

1) 〈The Japan Advertiser(Japan Times의 전신)〉 1918년 12월1일자, 12월15일자, 12월18일자.

월 1일에 와서야 폭발했느냐 하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또 고종황제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백성들이 분노한 것은 맞지만, 3.1운동이 표방한 국가적 이상이 '민주공화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종황제를 잃은 슬픔이나 또는 왕권 회복이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추상적인 뉴스를 접했다는 정도로 어떤 시점에 거족적인 봉기가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또 일본 영자신문의 기사를 읽고 동경유학생들의 일부가 자극받은 것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2.8독립선언→3.1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엔 석연치 못한 구석이 있다.

상기의 여러 원인들이 3.1운동의 발발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3.1운동을 촉발시킨 보다 직접적인 불씨는 조선대표가 방금 중국 상해로부터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는 소식이었고, 그 조선대표가 열강에 독립을 청원하러 갔으니 조선이 곧 독립될지 모른다는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청원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한 민족이 일제히 봉기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는 강한 설득이 모두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만든 실질적 동력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 소식을 전하고 거족적인 봉기의 설득을 위해 국내 각처와 일본 동경과 만주·연해주에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파견한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정당이라 불리는 신한청년당이었다.

2) 신한청년당의 창당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말할 때 3.1운동을 빼놓을 수 없듯이 3.1운동을 언급할 때 결코 그 존재를 빼놓을 수 없는 신한청년당의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1918년 6~8월설, 11월설, 1919년 1~2월설 등이 있는데 한 전기는 그 점을 이렇게 기록했다.

“1918년 하(夏)에 구주대전에 독일의 전세가 더욱 불리하여 오래지 않아 끝이 날 듯하다고 관찰한 여운형은 조동호·장덕수·신석우·김철·선우혁 제우(諸友)를 모으고 전후활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상의하였다.”²⁾

2)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총문각, 1946.

1918년 여름이라 했으니 6~8월설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모임은 여운형이 그와 가까웠던 조동호·장덕수·김철·선우혁·한진교 등과 함께 한 친목토론회의 수준이었다.

1차대전이 끝난 그해 11월 28일 주중 미국 대사로 내정된 찰스 R. 크레인이 상해를 방문하여 “파리강화회의는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크레인의 환영 연에 참석했던 여운형은 크레인을 직접 만나 조선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할 수 있다는 확답을 얻은 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다. 조동호·장덕수·신국권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청원서를 작성하고 여운형은 이를 영어로 번역했다.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삼으면 신한청년당이 창당된 날은 11월 28일이 된다. 그러나 작성된 청원서의 영어 문장을 미국인에게 수정받고, 또 그 과정에서 개인자격으로 청원서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운형이 상해에 있던 청년 30~40인을 모아 갑자기 신한청년당을 만들고 그 총무간사에 피선되었다는 기록³⁾을 참조하면 그로부터 이틀 뒤, 당시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던 토요일 곧 11월 30일이 창당일이 된다.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원 명단은 모두 33명(김구·김규식·김병조·김순애·김위택·김인전·김철·도인권·백남규·서병호·선우혁·손정도·송병조·신국권·신석우·신창희·안정근·양현·여운형·여운홍·이광수·이규서·이원익·이유필·임성업·장덕수·장봉·조동호·조상섭·최일·한송계·한원창·한진교)이었다.⁴⁾

신한청년당의 강령은 1)독립완성 2)사회개조 3)대동주의 실현 등 세 가지였다.

신한청년당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조선대표로 김규식을 택했고, 김규식은 파리로 떠나기 전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그의 부인 김순애는 회고했다.

“나 혼자만 말만 가지고는 세계의 신용을 얻기 힘들다.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에서 서울에 사람을 보내어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가는 그 사람은 희생을 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고 우리나라 독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⁵⁾

이 같은 김규식의 제안에 따라 신한청년당은 국내와 만주·연해주와 일본에 당원들을 조

3)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총문각, 1946.

4) <독립신문>, 1922년 3월 31일자.

5)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직적으로 파견기로 결의했다.

3) 3.1운동과 신한청년당

이에 만주·연해주로 파견된 여운형은 우수리스크에서 박은식·문창범·조완구·이동녕·원세훈·이승복형제를,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신한촌에서 채성하·강우규를, 만주의 간도 쪽의김약연·정재면을 만나 조선대표의 파리강화회의 파견 사실을 알리고 지금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전로한족회(全露韓族會)를 임시 국민의회로 개편하면서 여기서 전로한족회의 간부였던 윤해와 고창일을 파리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한편 신한청년당은 장덕수를 동경에 파견했다. 동경유학생들의 기관지인 <학지광(學之光)>의 편집장 최팔용은 장덕수로부터 신한청년당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대표로 김규식을 파견했다는 말을 듣자 김도연·김상덕·백관수·서춘·송계백·윤창석·이중근·최근우·김철수 등과 회동을 갖고 <2.8독립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2.8독립선언>을 기초한 것은 중국여행에서 돌아온 소설가 이광수였다.

2월 8일 아침, 최팔용 등은 각국 대사관·일본 정부·귀족원·조선총독부 및 각 신문사에 선언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날 오후 2시 동경 간다의 YMCA회관에 모인 6백여 명의 유학생들 앞에서 <2.8독립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8독립선언>의 필사본을 휴대한 최근우·송계백·정노식이 귀국하여 그 필사본을 중앙학교 교감 현상윤과 교장 송진우 등에게 전달했다. 이어 보성학교 출신의 현상윤은 이를 보성학교 교장 최린에게 전달했고, 천도교 신자인 최린은 천도교 교주 손병희에게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것만이 3.1운동의 불을 당긴 전부는 아니었다. 조선대표의 파리 파견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민중궐기를 촉구한 보다 조직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국내에 파견된 선우혁·김철·서병호·김순애·백남규·한송계 등의 신한청년당 당원들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선우혁의 활동이었다. 그가 만난 이승훈 장로와 양전백·길선주 목사는 1917년 여름 여운형이 만나 뜻을 같이 한 장로교의 실력자들로서 사실상 기독교계를 3.1운동에 참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또 그는 기독교의 유력자

들이 강규찬·김동원·김성탁·도인권·변인서·안세환·윤성도·이덕환·윤원삼 등을 만나 독립만세 시위운동과 독립운동 자금모집에 관한 적극적 찬동을 얻었다.⁶⁾

한편 김철은 천도교 본부를 방문하여 조선대표를 파리에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천도교로부터 운동자금 3만 엔의 송금을 약속받은 뒤 상해로 돌아갔다.⁷⁾

서병호는 대구 지방에 들어가 백남규는 호남지방에 들어가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킬 것과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대표 파견 자금지원 등을 종용하였다.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는 부산에서 백신영, 대구에서 김마리아, 서울에서 함태영을 만나 소식을 전하고, 국내의 독립운동 붐기를 촉구했다.

한편 일본에 갔던 장덕수는 2월 20일 경성에 돌아온 뒤 “이상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와 청년 동지들을 만나서 상해와 동경의 사정을 전해주었다.”⁸⁾

이렇게 하여 기독교,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협의한 끝에 민족행동을 같이 하기로 기독교측에서 16명, 천도교측에서 15명, 그리고 불교계에서 2명을 추가하여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하게 되었다.

마침내 3월 1일 정오를 기해 거족적인 3.1운동이 폭발하게 되었다. 그후 3개월간 전국의 만세 시위운동을 보면 집회 횟수가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 1만 5,961명, 검거자 4만 6,948명, 소각당한 교회당 47개소, 학교 2개소, 민가 715채나 되었다.⁹⁾

거족적인 3.1운동은 대내적으로는 일제의 무단정치를 문화정치로 바꾸었고, 대외적으로는 임시정부의 탄생·해외 무장독립운동을 촉진시킴과 더불어 중국 5·4운동의 불씨를 당겼으며, 멀리는 인도의 제1차 사티야그라하 운동·터키의 민족운동·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그 불씨를 지핀 것이 바로 신한청년당이었던 점은 앞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대목이다.

6) 朝鮮總督府, <上海在住不逞鮮人の行動>, 1920年 6月.

7)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편, <의암손병희선생 전기>,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1967.

8) 이경남, 앞의 책.

9)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신문사출판국, 1946.

4) 임시정부와 신한청년당

3.1운동 후 본국에서 현순·손정도·신익희·최창식이, 일본에서 이광수·최근우가, 항주에서 신규식, 시베리아와 화북에서 이동녕·이시영·조소양·조성환·조완구·신채호·김동삼등 30여명이 상해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그때까지 해외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만주나 연해주로 가지 않고 상해로 온 것은 신한청년당 당원들이 각처의 독립지사들에게 상해로 올 것을 권유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 한편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도 조선을 경유하여 상해로 왔다.

신한청년당 당원들은 이들을 성심껏 접대하면서 그해 4월 10일 프랑스 조계 하비로에 있는 한 외국인 가옥에서 독립지사들의 회의를 열었다.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모든 것을 준비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가한 대표 인원은 모두 29명¹⁰⁾이었는데, 이중 9명이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이날 성격이 탈바꿈된 임시정부 의정원에는 신한청년당 간부들이 대거 참여했고, 회의 마지막에 조직된 임시정부의 외무부 위원장에는 여운형이, 재무부 위원장에는 김철이 선출되는 등 신한청년당 출신이 다수 참여했으나 임시정부와의 공식적인 관계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해 5월 중순경 미국에서 온 안창호가 종래의 위원장 제도를 대신할 관계개혁을 제창하여 6월 하순경 관계 개혁이 단행되었는데, 이 관계개편을 계기로 여운형은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게 된다. 종래의 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위시하여 조각까지 하게 되면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형태가 된 것인데, 현실은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름뿐인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독립운동의 방법론상 감투싸움과 파벌싸움에 치중하는 임시정부보다는 실질적인 대외 독립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0) 김대지·김동삼·김철·남형우·백남철·선우혁·손정도·신석우·신익희·신채호·신철·여운형·여운홍·이광·이광수·이동녕·이시영·이한근·이회영·조동진·조동호·조성환·조소양·조완구·진희창·최근우·한진교·현순·현창운./그밖에 이규갑·이봉수·이춘숙·한남수·홍도 등도 참가했다는 설도 있다.

5) 맺음말

임정과 관계는 멀어졌지만 신한청년당은 그후로도 계속 존속했다. 1919년 12월 1일부터는 기관지 <신한청년>을 창간하면서 여운형이 단장으로 있던 '상해대한인거류민단'과 합동으로 조선의 독립과 교민권익을 위해 활동했다. 또 신한청년당은 1920년 8월 중국을 방문한 미국 위원단을 만나 한국독립에의 지원을 요청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했고, 1922년 1월 '원동 피압박민족대회'에 여운형과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또 1922년 11월 당원 김구의 제의에 의해 신한청년당은 한국노병회를 창립하여 독립전쟁을 위한 실력준비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중순 신한청년당은 자진해산하기로 결정한다. 그 이유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던 김규식이 임시정부에 의해 한국대표를 겸하게 되어 외국인들에 혼동을 준다는 임시정부 측에서 해산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청년당은 서병호의 집에서 회의를 열고 자진해산하기로 결의했는데, 이는 마치 해방 직후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가 설립 한 달여 만에 자진해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존속기간은 짧았지만 3.1운동의 진원을 형성했고, 2.8독립선언을 촉진시켰으며 연해주에서의 2.25 대한독립선언 대회 개최를 유발시킨 신한청년당의 혁혁한 활동은 지금까지 정치적 이유로 가려지고 폄하되어 왔으나, 앞으로 재조명되어 정당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시현(金始顯 1883.6.9~1966.1.3)과 권애라(權愛羅 1897.2.2~1973.9.26)



김영방
前 역삼중 교사

1. 머리말

일제 강점기는 우리민족의 수난과 고통이 점철된 시기였다.

암흑과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시현은 여러 민족 단체와 관계를 가지면서 군자금모금, 동지규합, 무기구입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반평생에 걸친 반복된 옥고와 함께 일본 메이지 대학 출신으로 30대 중반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줄곧 의열투쟁이라는 한줄기 방향을 유지했다.

김시현의 부인 권애라 여사도 항일투쟁운동에 앞장섰으며 부부가 함께 적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동지로서의 일생을 함께하며 몸을 돌보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는 삶을 살았다.

또한 그의 아들 김봉년도 부모를 따라 어려서부터 독립운동에 합세한 가족독립군이라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들을 한집에서 가까이 지켜본 손녀딸로서 아버지 김봉년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실제 권애라 여사와 한방을 쓰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기에

감회가 새롭다.

이 글은 안동 권씨 종보사 주필 권광욱저-권애라와 김시현, 김희곤 안동대학교수저-김시현 선생 추모 학술강연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2. 민족운동가 김시현의 항일투쟁



▲ 김시현의 30대 젊은 모습

김시현은 안동시 풍산읍 현애동에서 1883년 6월 9일에 태어났다.

1911년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여 1917년 35세에 졸업을 하고 귀국하였다. 안동 김씨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한 인물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그가 민족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한 시기는 일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다.

3.1운동에 연루되어 상주 헌병대에 두 달 정도 구금되었다가 나와서 1919년 5월 상해로 망명한 그는 의열단원으로서 활약하다가 1920년 9월 일제에 검거되었다. 1년 옥고를 치른 뒤 다시 중국으로 이동 한 그는

1922년 2월 모스크바 극동약소국가 민족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1921년 9월에 출옥했다고 보면 바로 그 직후에 소련행이라는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김시현은 뒷날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할 국가대표자 선발 및 여비마련을 위하여 황옥으로부터 여행증 및 여비를 보조 받아 국경을 통과시켜 대표들을 소련으로 보냈으며 그는 여운형, 나용균, 김규식과 함께 이르쿠츠크를 경유하여 모스크바에 갔다고 술회하고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 각국 참가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몽골을 횡단하여 오는 경우가 있어 대다수 인물들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날짜와 장소의 변경이 있었으며 소련의 최고 지도자 레닌을 만날 것이라는 점도 그들을 흥분 시켰다.

참석자들은 모두 자신을 파견한 단체나 기관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학력과 투쟁경력 및 참석목적 등을 담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코민테른 극동부 고려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1922년 1월 21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전에서 개회식이 열렸다. 극동지역 참가자들은 한국을 비롯하

여 9개 국가 민족이 왔다. 모두 144명 중 한국 대표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42명, 일본 16명 순이었다. 소련으로 향한 우리 독립 운동가들의 기대와 열정이 드러나는 수치였다. 또 의장단에 중국, 일본, 몽골 등과 함께 2명씩 배정받아 김규식과 여운명이 포함되었다. 권애라도 상해 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여성대표는 권애라, 김원경, 김덕영, 정수정 모두 4인이었다. 코민테른에서 회기가 이어지는 막간을 이용하여 오락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권애라는 빼어난 열창으로 박연폭포와 개성난봉가를 불러 각국대표의 박수를 받고 프리마돈나 같은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 날 이후 권애라는 김시현의 구애를 받게 되어 동토의 이역 모스크바에서 평생의 동지이며 남편인 김시현과 만국 대표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되었고 이상과 이념이 통하여 평생 어려운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다. 약소민족 대회는 2월 2일 막을 내렸고 이 곳에서 결의된 한국 문제는 3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조선에서는 계급의식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계급운동은 시기상조이다.

둘째, 일반대중이 민족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계급운동자가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셋째,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는 그 조직을 개혁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역만리에서 결혼을 하게 된 김시현과 권애라는 부부로서 그 곳을 떠나 사랑의 귀로에 오르게 되었지만 광복된 동경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권애라 여사는 중국여성으로 위장하여 중국 상해를 거쳐 소주로 돌아가고 김시현은 신부보다 뒤에 떠나 상해로 돌아왔다. 그들은 조국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부로서의 위치는 당분간 서로 찾지 않기로 약속했다. 상해와 소주가 그리 먼 곳은 아니었지만 서로 당분간 찾지 않기로 약속한 그들에게 그 곳은 만리장성 인양 멀리 느껴지는 곳 이었다.

훗날 1962년대 후반 모진풍파를 함께하다 김시현과 사별한 권애라는 옛날을 회상하며 꽃다운 처녀시절 모스크바 약소민족대회 참가 중 평소 톨스토이의 작품에 심취하여 톨스토이 고택을 찾아 보던 중 그곳에서 김시현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서로 낯선 곳에서 조국을 걱정하며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김시현은 상해로 돌아온 뒤 국내에서 대중투쟁을 전개하기위해 국내의용단과 연결하고 몰두하는 한편, 의열단의 국내공작에 앞장섰다. 김시현의 투쟁 방향의 핵심은 대략 4가지였다.

첫째, 민족 독립 혁명이 민족주의를 철학으로 삼고 민족적 자각심과 자주적 확보가 급선무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군사령부, 경제시설 등 주요기관의 공격 넷째,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폭탄 제조의 필요성 및 확보, 국내수송 등이다.

김시현은 만주와 국내, 중국 관내와 국내를 연결하는 투쟁이 그의 목표였다. 마침 의열단은 1922년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였다. 1920년부터 추진되던 일제 주요인물 차단 및 1920년 조선총독부 투탄 사건 등이 연속 추진되던 터였다. 일단 상해에서 무기를 만들고 마련하더라도 그것을 국내로 안전하게 반입하는 것이 중요했다. 바로 그 때, 김시현이 그 임무를 맡을 책임자로 선택되었다. 김시현은 황옥, 유석현과 함께 시한폭탄, 권총, 총알 등을 큰가방 3개에 나누어 담고 천진을 출발하여 조선일보 지국장 홍중우 집에 옮겨 놓았다. 이들은 조선일보 안동 지국이 개설된 직후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개국 축하연을 꾸미고 축하연이 무르익는 가운데 2차 연회를 신의주에서 열자고 제안하여 인력거에 개국 축하공연 소품과 함께 무기도 실어 날랐다. 서울까지 무사히 들여온 무기들이 믿었던 사람의 밀고에 의해 일제의 탐지망에 걸려 실패하고 책임자인 김시현은 붙잡혀 또다시 10년형을 선고받는다.

감형으로 6년의 옥고를 치른 김시현은 대구형무소에서 1929년 1월 29일 출감하여 몸은 힘들었으나 정신력 하나로 곧바로 길림으로 향하였다. 김시현은 그의 꿈인 조국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의열단이 남경에 설립한 조선혁명 정치군사간부학교라는 군관학교 운영에 그의 존재를 드러내었다. 이후 의열단은 의열 투쟁만으로는 독립을 달성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군관학교를 통한 초급장교들을 육성하여 의열단의 투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김시현에게 군사간부학교 동참을 권한 인물은 당시 천진공과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김규식이었다. 극동민족대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연도 있고 의열단이라는 틀 안에서 주고받은 밀고 의지하는 정서도 있었다. 이육사가 처남 안병철과 군사간부학교 1기생 26명 가운데 한사람으로 입교하였다. 김시현은 의열단 간부로서 활동하며 군사간부학교 1기생 한석평이 변절하여 밀정노릇을 하는 사실에 분노하여 밀사를 시켜 한석평을 처단하였으나 일본경찰에 검거된다.

1929년 대구형무소를 나온지 6년만에 다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일본 나가사키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9년 9월 출감하였다. 그 이듬해 1월 서울로 돌아와서 4월 북경으로 건너갔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결코 꺾이지 않는 불사조 같은 불굴의 걸음이었다. 평소 말이 적고 과묵한 그의 항일투쟁은 격렬하고 끈질긴 면모를 보였다.

3. 조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의 일생

부인 권애라와 아들 김봉년도 신경(장춘) 감옥에서 3년동안 옥고를 치르고 고생하다가 해방을 맞아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 권애라와 아들 김봉년은 장춘감옥에서 서로 다른 방에 수감되어 얼굴은 볼 수 없었으나 화장실의 낙서를 통해 서로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

해방을 맞아 김시현과 권애라는 만날 수 있었으며 세 식구가 모여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해방 직후 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김시현을 영입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김시현은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정치활동을 펼치기보다는 국외에서 귀국하는 동포들의 구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1945년 9월 그는 귀한동포를 위한 고려동지회를 결성했다. 고려동지회는 약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시현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중국동포들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한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김시현은 금남 영생 고아원을 설립했으며 동양공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김시현이 정치활동에 복귀한 시기는 1947년 무렵이었다. 이때는 한반도 문제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으로 가느냐, 남북분단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한반도 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김시현은 직접 정치활동에 참가하였다.

정치활동을 시작한 후 줄곧 중도노선을 걸으며 민족자주연맹에서 활동하던 김시현은 1949년 돌연 민주국민당에 참여하여 1950년 5월에 제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제 2대 국회는 6월 19일 개원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다. 김시현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이승만 정권의 전횡으로 민중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 했으며 대통령을 제거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애국적인 정부를 세우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대통령을 저격하기로 결심한 김시현은 경북 안동 출신의 유시태와 함께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1952년 6월 25일 부산 충무동 광장에서 한국전쟁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 도중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권총 불발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유시태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다음날 김시현은 저격사건 배후 조종자로 체포되었다. 저격사건을 상의한 대다수의 사람은 실행을 선고받았고 김시현과 유시태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이후 김시현과 유시태는 무기

징역으로 감형되었으며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대통령이 하야한 후 석방되었다.

김시현은 1960년 제 5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계를 은퇴하여 재야에 묻혀 어려운 노년을 보내게 된다.

4. 권애라의 성장과 독립운동



▲ 권애라의 60대 후반 모습

권애라는 1897년 2월2일 강화도 교동에서 권민신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2살 때 개성으로 이주하였다.

- _1914년 개성 호수돈 여고보졸업
- _1917년 서울 이화학당 보육과 졸업
- _3.1운동 참가로 서대문 형무소 6개월 옥고
- _1920년 4월-5월 6회에 걸쳐 애국사상 고취를 위한 강연회 시도
- _중국 소주 경해학교 사범과 진학
- _중국 상해 애국부인회 소속활동(대표로 모스크바 극동 민주대회참가)
- _김시현과 모스크바에서 결혼
- _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서훈

어려서 유달리 총명했던 권애라는 천자문을 일찍 떼고 초등학교(두올라 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동교 중학교에 진학하게된다.

이 두올라 여학교는 호수돈여자 고등 보통학교로 교명이 바뀌게된다.

권애라는 애국열이 높고 웅변과 연설을 잘했다.

호수돈여고 3학년 때 학교육상에 친구 장정심과 올라가 쓰러진 조국에 슬퍼 울며 조국독립을 위하여 일하다가 함께 죽자는 맹세를 왼팔에 새겼으리만큼 오직 조국애에 불탔었다.

1914년 봄 18세로 호수돈여고를 최우수 성적으로 추천받아 이화학당에 진학하였다.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권애라는 2년 후배인 유관순을 만나 선 후배로 함께 생활하게 된다.

1917년 봄에 이화학당을 졸업한 권애라는 개성의 충교 예배당에서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2년 뒤 1919년의 기미년 3.1운동을 맞았다.

1919년 2월26일 개성 호수돈여고에서 권애라는 독립선언서 80매를 어윤희에게 넘겨주어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 여 옥사에 6개월 형을 언도받고 수감된다.

이곳에서 후배 유관순 및 3.1운동 동지 9명이 함께 의지하며 옥살이를 하였다.



▲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여

5. 맺음말



▲ 제5대 국회의원 시절 모습

일제 강점기에 김시현은 6차례에 걸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였고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인한 옥고 등 생애의 태반을 감옥에서 보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당한 고문과 후유증으로 몸은 극도로 쇠약했고 노년의 생활은 곤궁하였으나 권 여사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버티었다.


1966년 1월3일 추운겨울날 83세의 김시현은 마지막 길을 떠나며 권동지 미안하오라고 인사하셨다 한다.

김시현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장례위원회 9인의 고문 중에 대통령 박정희가 가장 으뜸에 이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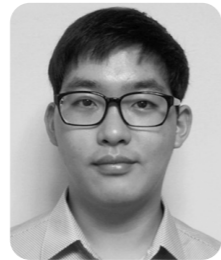
올렸다.

그 후, 권애라 여사는 조국을 위해 못 다한 열정을 조용히 실천하시다가 1973년 9월26일 76세로 생을 마감하시어 벽제 운영 공원묘지에 모셔졌다가 추후 90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김시현, 권애라 부부는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독립운동가 부부이다.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조국을 위해 떠돌았던 그 많은 시간과 감옥생활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혁명투쟁가 부부의 후회 없는 한평생이라 믿는다. 

To. 허은 할머니께



조 현 기
서강대학교 사학과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께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를 읽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독립 운동가란 열정적으로 평생을 다 바쳐 독립운동만을 하고 사시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독립 운동가에게 지급되는 식량과 군자금은 열의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생각이 부끄럽게도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독립 운동가들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힘들고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책을 통해 본 그 당시 상황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독립 운동가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며 그들의 가족 또한 고생을 함께 했다는 것을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같은 여성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자녀 양육과 부모님 봉양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며 막중한 임무를 떠안아야만 했던 할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이상화·이상룡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며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가문과 시택인 고성 이씨 가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많고 명성이 높은 가문들이 기득권이길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초기의 독립운동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과 활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류층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끔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과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시나요? 할머니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인생=간도지방 독립운동의 역사’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인

생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간도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어떤 삶과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 허훈 의병장, 작은 할아버지 허위 의병장,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사책에는 무거운 표현으로 거론되시는 독립운동가들이지만 할머니의 정겹고 구수한 표현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 볼 수 있었고,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책을 통해 역사는 한 인물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같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께 편지를 쓰고 있는 날이 '아버이 날'입니다. 지금에 저를 있게 만들어주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꿈속에서 만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비록, 할머니를 직접 뵈지 못하고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오늘날 수여되는 독립훈장을 못 받으신 것이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 독립훈장을 할머니께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이 편지로나마 대신 전합니다.

"2013년 5월 8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조현기는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신 허은 할머니의 가슴에 독립훈장을 달아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록 큰 힘이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할머니께서 제가 드리는 독립훈장을 받으시고 기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영화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현재와 만나는 과거에 대한 향수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영화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Nostalgia for the Light>(2010)을 만든 파트리시오 구스만 감독은 70년대 칠레 민중정부와 군사쿠데타 사건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칠레 전투 The Battle of Chile> 3부작(1975~1979)을 만들었던 감독이다. 아마도 그가 1973년 쿠데타 직후 망명하여 <칠레 전투>를 편집하고 있던 당시에 그는 다시 칠레로 돌아오기까지 23년의 세월이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1979년 완성한 3부작의 마지막 편 "민중의 힘 The Power of the People"에서도 그는 여전히 어떻게 민중연합이 반동세력의 공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 21세기가 된 지금 그는 지난했던 굴곡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역사와 대한 반성과 시적 명상을 담은 영화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를 만들었다. 이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고전이 된 <칠레 전투>의 감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20세기의 변혁운동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을 설레게 하는 구스만 감독이기에, 과연 이 영화에서 그가 어떤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게 된 것도 낯선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영화는 감독의 내레이션과 함께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시작하고 있었다. 감독은 어린



시절 별자리와 망원경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 했다. 고원에 위치한 이 사막에도 천문 관측소들이 있는데, 건조하고 깨끗한 대기 덕택에 천문학자들에게는 천체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관찰하는 별빛이 오랜 시간을 거쳐 지구에 도착한 과거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즉, 하늘로부터 오는 과거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아타카마 사막에는 과거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도 있다. 수세기 전부터 이 사막에는 목동들의 길목이 있었고 역시 건조한 기후 덕에 목동들의 주검까지도 고스란히 미라가 되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막의 하늘과 땅에는 모두 서로 다른 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정작 가까운 과거를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화는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현재 칠레에서는 19세기 광산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원주민 인디언들과 노예나 다름없이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흔적 역시 거의 남아있지 않다. 말하자면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막의 차카부토란 한 지역에는 여전히 광산 노동자들의 거주지역이 남아있다. 그리고 70년대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이곳은 정치범들의 수용소로 다시 쓰이게 된다. 영화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안에서 별들을 보았다고 한다.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그 곳에서 그들은 별을 관측했고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내면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수용소에서의 기억을 삽화로 그리는 한 생존자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화의 중반에 이르러 또 다른 주인공들이 그 사막에 나타났다. 십여 년 동안 아타

카마 사막의 곳곳을 걸으며 작은 삽을 들고 희생자들의 주검을 찾는 여성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이 된 남편과 형제들을 찾고 있었다. 바다에 수장된 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을 유해를 사막 한 가운데서 찾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처럼 때때로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하고, 소중한 이의 신체 일부를 찾기도 했다. 그러나 온전한 모두를 되찾을 때까지 그들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헛된 희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영화는 담고 있었다.

영화는 아타카마 사막의 천문학자들과 고고학자들만큼이나 이 여성들 역시 과거를 찾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과 망원경과 별들의 기원, 고대인들의 미라와 군부시대 정치범들의 이름 모를 시신들 그리고 모든 과거들이 이곳 사막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남은 단지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젊은 천문학도는 부모를 잃고 조부모들에 의해 자랐는데, 그들로서는 당시 정치범이었던 아들 내외의 은신처를 말하는 대신 손녀의 안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이 연구하는 별들의 순환만큼이나 부모님들의 희생과 지금의 자신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영화의 마지막은 천문학자들이 사막의 고원에 위치한 천문대로 사막에서 유해를 찾는 여성들을 초대하는 장면이었다. 그녀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천체망원경을 통해 사막 위로 또 다른 먼 과거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진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잠시 입장을 바꾸어 서로의 과거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 <빛을 향한 노스탤지어>가 가진 영화적 드라마는 개개의 인물과 스토리들이 가진 감동과 함께, 감독 개인의 과거와 칠레의 역사 그리고 희생자들의 주검과 별들의 탄생을 함께



▲ 영화 <빛을 향한 노스탤지어> 중에서..



말하는 현격한 원근감의 차이와 이동에서 비롯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으로 극적인 전개를 담은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단지 현학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까닭은, 감독 자신이 칠레의 현대사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로서의 슬픔과 함께 최선의 의무로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사학과 교수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강의에서 역사적 사유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오랜 진화론의 학설에 비유를 하였다. 즉, 역사상의 사건 역시 사건 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함께 그 사건을 배태한 현실의 구조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는 아직도 여전히 민감한 칠레 현대사의 상처를 천문학적 주제들과 함께 시간에 대한 시적이고 과감한 명상으로 다루고 있다. 조금 다른 맥락에서 구스만 감독 역시 하나의 사건이 더 큰 사건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순환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 인간과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어느새 칠레의 현대사와 맞닿아 있었고, 그 현대사의 흔적이 남은 현장에서 누군가는 우주 너머 빛의 기원을 찾고 있다. 물론 그러한 연결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과거를 되돌아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것이다.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은 위태로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지만, 과거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칠레 전투>에 대한 평범한 후일담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감독이 70년대 당시에 마찬가지로 현재와 과거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역시 영화가 보여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기 때문일 것이다. 



▲ 영화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 중에서..

일제의 여공 착취에 항거한 오뚜기 “이효정”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나라가 없는 판에 시험이 다 무엇이나
백지동맹 앞장서던 겁 없는 열여섯 처녀
광주학생 만세 함성 듣고
피 끊어 떨치고 일어선 종로거리 만세운동

경성 트로이카 열혈 청년 이재유 도와
노동자 권리 찾다 고등계형사에 잡혀
갖은 고초 당했어도 의연한 자세
죽음을 불사한 민족차별 철폐 운동 후회는 없어

폐병 전더가며 쟁취한 해방 된 이 땅에서
안락을 구걸한 적 없다마는
사회주의 남편 빨갱이로 몰려 숨죽여 살던 삶

어린 삼남매 부여잡고
떠돌던 시절을 더는 묻지 말라

영혼 떠나버린 빈 껍질 홀로 추슬러
마산 딸네 집 허름한 프락의
이름 없는 들꽃을 사랑하다
한 권 시집 남기고 홀연히 떠난 자리
오늘도 목백일홍 저 혼자 외롭게 피어있네.

이효정(李孝貞, 李春植, 1913.7.28~2010.8.14)

이효정 애국지사는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만세를 부르다가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또한, 3학년 때는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을 주도해 무기정학을 당했다.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는데 1933년 9월 21일, 종연방적[鐘紡] 경성제사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동료 이재유와 함께 여직공을 선동하여 총파업을 주도하였다. 정부는 이효정 애국지사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이 윤 옥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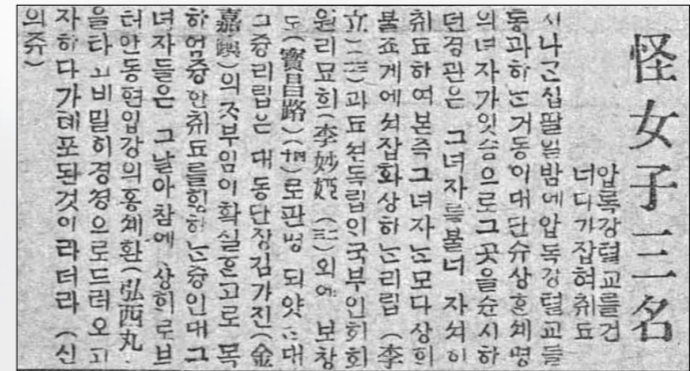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으로 왜곡된 역사를 시를 통해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무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시로 승화한 『서간도에 들꽃 피다』 1권을 시작으로 현재 3권까지 발간하였으며 앞으로 1,000여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시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시집 『사쿠라 불나방』, 『서간도에 들꽃 피다』 1·2·3, 41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다룬 영문판 시집 『41 Heroines : Flowers of the Morning Calm』 등 국의 잔 다르크를 알리는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는 미국 보스턴에서 박혜성 박사를 중심으로 영문 번역되어 2013년 5월 16일, createspace 출판사에서 《41 Heroines : Flowers of the Morning Calm》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옛 신문[毎日申報] 1922-06-24 | 03면 | 7단 | 기사 한 토막을 전제한다. 사진의 기사를 풀어 쓰면 아래와 같다.

怪女子 3名, 압록강철교를 건너다가 잡혀 취조

지나간 18일 밤에 압록강 철교를 통화하는 거동이 대단히 수상한 세명의 여자가 있음으로 그 곳을 순시하던 경관은 그 여자를 불러 자세히 취조하여 본 즉 그 여자는 모두 상해 불조계에서 잡화상하는 이립(32)과 조선독립애국부인회 회원 이묘희(23) 외에 보창로(40)로 판명되었는데 그 중 이립은 대동단장 김가진의 자부임이 확실한 고로 목하 엄중 취조를 행하는 중인데 그 여자들은 그 날 아침에 상해로부터 안동현 입장의 홍서환(弘西丸)을 타고 비밀히 경성으로 들어오고자 하다가 체포된 것이라더라 (신의주 의주)



[毎日申報] 1922-06-24 | 기사 03면 7단

신의주발로된 이 기사에는 압록강을 건너던 세 명의 여인 중 이립이라는 여인이 “대동단장 김가진”의 자부(머느리)인 것이 확실하여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다.

기사 내용으로 보아 이 신의주 주재 기자가 그곳 일본 경찰의 조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기사에는 압록강을 건너오던 “여자3명”이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일은 이미 밝혀져 있으며, 이 기사는 엉터리 보도였다.

1922년 6월 대동단 김가진 총재의 며느리 정정화 여사(본회 회장 김자동의 모친)가 압록강 다리를 건너다 잡힌 것은 사실이다. 그 때 함께 잡힌 사람은 이립(李立)이란 여자가 아닌 이육(李昱)이란 남자였다.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온 보창로(寶昌路)란 여인은 아마도 상하이에 실제로 있었던 보창로 40호란 주소를 사람이름으로 혼동한 데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오는 이묘희(23)는 나이로 보아 정정화여사인 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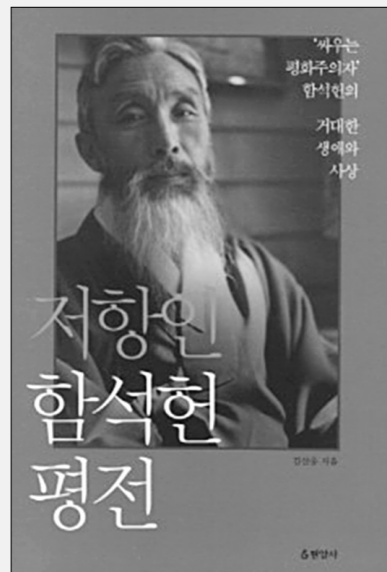
더구나 묘희는 정 여사의 아명이다.



저항인 함석헌 평전

(김삼웅 지음 / 현암사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저항인 함석헌 평전』은 한국형 평전 쓰기의 한길을 매진하고 있는,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선생이 스무 번째로 쓴 평전이다. 그동안 가까이로는 현대사에서 통일과 민주화, 자유와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을 고취한 문제적 인물(조봉암, 장준하, 송건호, 김대중, 노무현, 리영희, 박현채, 김근태), 조금 멀리는 근대사에서 나라의 자주 독립과 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각자(전봉준, 안중근, 박열, 김구, 이회영, 김상덕, 김원봉, 김창숙, 한용운, 신채호, 독부 이승만) 등의 삶을 그려냈다. 김삼웅 선생의 평전 쓰기는 입장의 선명함(권력과 사육이 아닌 시대와 소명예의 충실)과 생산성(1년에 2-3권)이 놀랍지만, 그럼에도 철저히 서지 자료에 근거한

객관성과 인물의 공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평전 분야의 독보적 입지를 넓혔다. 특히 어른이 사라진 시대에 오늘의 역사에서 되새겨 읽어야 할 ‘위인’을 호명하는 김삼웅 선생의 안목은 늘 시의적이며 예지적이다. 모두 서른 권의 평전을 계획하는 김삼웅 선생의 빛은 함석헌에 이어서 안창호(2013년 5월 출간), 홍범도(2013년 12월 출간), 여운형 등으로 이어져 종내는 다산 정약용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싸우는 평화주의자’, 영원한 청년 함석헌의 거대한 삶과 사상 함석헌은 1901년, 20세기가 막 열리는 시대에 태어났다. 조선이 망할 무렵에 태어난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19세 때에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퇴학을 당한다. 오산학교에서 들사람 류영모·이승훈·안창호·조만식을 만나면서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에 눈뜨게 된다. 동경고등사범 유학 시절에 간토 대지진을 겪고 우치무라 간조의 무교회 사상에 접하게 되면서 함석헌의 ‘들사람’ 혼이 성장

한다. 많은 동시대인들이 뒷날 친일파가 되었지만 그는 굳건한 반일 사상으로 《성서조선》에 글을 썼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찍혀 서대문형무소에 갇힌다. 함석헌은 해방과 함께 소련군에게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간신히 월남한 남한에서 장준하와 함께 《사상계》를 만들다가 이승만에게 밋보여 투옥된다. 이후 가장 먼저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필화를 입는다. 박정희에게 함석헌은 제1의 강적이었다. 김종필은 5·16을 비판하는 함석헌을 ‘정신분열증에 걸린 노인’이라 막말을 하고, 군사정권은 그의 말과 글을 막으려고 온갖 핍박과 탄압을 가했다. 함석헌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혹독한 군사독재에 저항한 거의 모든 사건에 앞장섰다. 그는 70이 넘고 80이 되어서도 반독재 투쟁에 어김없이 참여했다. 민주화 투쟁의 전선에서 백발의 노옹 함석헌의 존재는 구심점이었다. 씨알들은 그를 ‘할 말’을 하는 지도자로 존경했다. 권력욕이 없고 정파와 물욕과 권위를 벗은 그의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찾기 어려운 어른의 상이었다. 함석헌의 저항은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과 부의 신도로 전락한 주류 기독교 지도자들, 어용기관이 된 대학의 교육자, 권력과 야합한 언론, 사이버 지식인들을 거침없이 비판하는 ‘한국의 소크라테스’ 역할을 했다. 그는 중년 시기부터 1일1식으로 먹는 것을 즐기고, 흰 수염·흰옷·흰 고무신으로 조선정신을 이으면서, 민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을 쓰는 것은 민중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구어체 우리말과 우리 글로 뜻을 폈다. 그러면서도 넓은 철학과 사상과 저술은 누구도 넘보기 어려웠다. 함석헌은 민(民)을 뜻하는 ‘씨알’이라는 말을 통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90평생을 싸우면서 살았다. 평생을 일제, 공산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권력 집단, 지배세력에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그래서 ‘싸우는 평화주의자’라는 닉네임을 얻었고, 한국의 모세, 한국의 간디라는 별칭이 따랐다. 그가 걷고자 한 야인의 길은 권력·부·종파·세력·집단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 있었다. 그의 말은 진실이 있었고 글에는 믿음이 실려 민중은 그를 따랐다. 함석헌은 20세기 혼돈의 이 땅에서 반독재와 평화통일, 그리고 씨알이 주인이 되는 민주화의 역사를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다 하다가 1989년 먼 곳으로 떠났다.

20세기 한국 사회의 증인, ‘들사람’ 함석헌의 본모습을 그린 뜨거운 평전 함석헌은 20세기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같은 시대는 물론 전후사를 통해 그만큼 폭넓은 지식과 학문을 두루 갖춘 사람이 또 누굴까. 그는 종교·역사·철학·사상·교육·언론·민중·평화·비폭력·인권·민족·여성·시·아나키즘·퀘이커·세계사에 전문가 이상의 식견을 갖고 이것을 통섭하는 거대한 지식 체계, 학문 세계를 이루었다. 함석헌은 교육가·사상가·시인·언론인·종교인·역사학자·민주화 운동 지도자·아나키스트 등 다양하게 불린다. 그



렇듯 함석헌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들 모든 분야를 넘나들고 포괄하는 ‘큰 그릇’이었다. 지은이는 함석헌의 본령(本領)을 서슴지 않고 ‘야인(野人)’, 즉 ‘들사람’ 정신이라 말한다. 함석헌의 역사관·교육관·민중관·언론관·종교관이 모두 야인정신에서 발원했으며 이는 순전한 저항정신으로 체화되었다고 말한다. 지은이가 이 책의 제목에 ‘저항인’이라는 수사를 붙인 까닭은 그간 함석헌을 노장(老莊) 사상가·퀘이커 종교인·『뜻으로 본 한국역사』를 쓴 재야사학자·인생론을 설파한 문필가 등으로 ‘축소’하여 읽어 왔다는 아쉬움 때문이다. 그는 새로운 평전을 통해 함석헌의 본모습, 즉 전 생애를 통해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고 행동한 참 지성 함석헌을 그리고자 하였다. 지은이는 함석헌을 성인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도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흠결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함석헌은 아무런 대가도, 어떠한 감투도 탐하지 않는, 보상이 없는 생애를 살았다. 그러면서 맨 정신으로 씨알의 신음 소리를 듣고, 세상의 아픔을 대신 앓았다. 질곡의 20세기 한국의 씨알들은 함석헌이 있어서 위로 받고, 생명을 찾아 꿈틀거릴 수 있었다.

함석헌이 만나고 풀어간 사상과 언어, 맞서고 누린 저항과 생활로부터 우리는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숭고한 경지를, 풀과 미물까지도 어여쁘게 쓰다듬는 따스한 하심(下心)의 지극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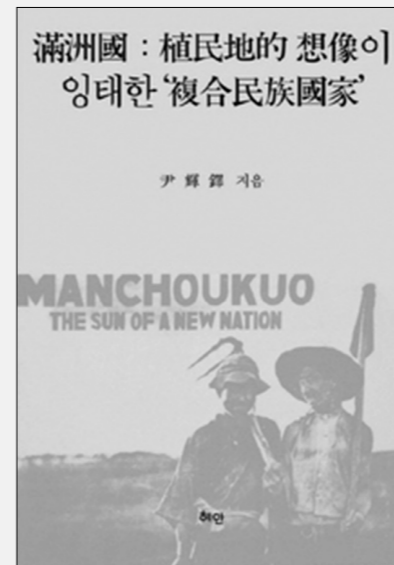
(윤희탁 지음 / 혜안 출판사 펴냄)

서평: 김주란(마이빌 뉴스 문화부 기자)

새로운 시각으로 만주국 보고자 집필

만주국은 일본의 관동군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그다음 해에 중국 만주 지역에 세운 국가로 1945년 일본이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여 중국에 반환될 때까지 존재하였다. 일본·만주족·한족·조선족·몽골족 등 여러 민족이 화합하는 국가를 수립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일본 관동군이 장악한 괴뢰 정권이었다.

윤희탁 교수는 오랜 기간 중국과 일본에서 편찬한 만주국에 대한 각종 실태 조사 보고서와 통계들을 수집해 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만주국의 정부와 군대, 경찰을 비롯해 상공업계, 노동계, 농축림어업



계의 민족 구성과 민족 위상, 민족 상호 간의 인식 등을 자세하게 분석해 책을 펴냈다.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 국가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만주국의 표면적인 국체(國體)만을 설명해줄 뿐입니다. 만주국 산업 사회 전반의 민족 구성과 민족 관계 분석을 통해 만주국이 지녔던 새로운 면모를 들여다보고자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내세운 ‘민족협화(民族協和)’의 허상

윤 교수에 따르면 1932년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괴뢰정부 만주국을 세우면서 건국이념으



로 '민족협화(民族協和)'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며 '복합민족국가'를 주창했다. 하지만 만주국은 중국인과 조선인, 일본인, 러시아인,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이 모여 대립과 갈등, 충돌의 요소가 빈번히 생겨났다. 지배 민족인 일본과 그 외 피지배 민족들 간에 갈등과 모순이 겹치면서 대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을 국민·국가론적 시각에서 규범화할 수도 없었다.

“만주국의 질서를 강압적으로 유지시켜왔던 관동군이 궤멸하자 만주국을 형성한 각 민족 사이에는 모순이 폭발하면서 대립과 충돌이 격심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도 중국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광복 후 조선인 '일본 앞잡이'로 몰려

당시 일본은 일본인을 1등 공민(公民), 조선인을 2등 공민, 중국인을 3등 공민으로 나누어 식량배급과 임금 등에서 민족 간의 차이를 두는 차별 정책을 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여기게 됐고 패망 이후 그들의 원한은 조선인을 향했다.

윤 교수가 <한교사무(韓僑事務)>, <동북복원계획강요초안>, <중국조선족 이민실록> 등 중국 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45년 종전 직후 중국 국민당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 조선인 176명이 사망했고 1866명이 부상당했으며 3468명이 구금, 320명이 강간을 당했다. 1947년에는 조선인 2042명이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고 8468명이 체포됐다.

윤 교수는 “이런 자료들을 통합한 결과 민족협화 같은 건국이념으로 무장된 만주국인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주국은 주변 민족들의 민족적·지정학적 모순이 응결되어 만주에서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사라졌다”며 “일본이 주창한 '복합민족국가'는 허상이며 그들의 식민지적 상상과 제국적 욕망 그 속에서만 존재했던 복합민족국가였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그의 이번 저서를 한국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평가하고, 중국과 일본에 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느 상인 독립군 이야기 - 상해 한상 김시문의 생활사 (김광재 지음 / 선인 출판사 펴냄)

서평 : 월간잡지 좋은아침

소리 없는 상인 독립군, 김시문



김시문은 1892년 경기도의 한 소작민의 외아들로 태어났으며 일찍 양부모를 여위고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남의 종노릇을 하며 생활했다. 1907년 정원봉이란 사람 밑에서 점원 노릇을 하면서 우연히 가게장사를 배우게 된 그는 후에 신신학교의 야학부를 다니며 민족의식이 조금씩 싹트게 되었고, 이후 일본 경찰에 의해 위험분자로 지목되자 위험을 느끼고 조국과 고향을 등진 채 1916년 6월 26일 상하이로 건너간다.

그는 다른 한인처럼 반 유랑생활을 하면서 상하이의 거리나 골목골목을 다니며 한국의 인삼을 팔아 근근이 생활을 꾸려갔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서자 김시문은 뻘이러루(瓦勒路), 현재의 황피난루(黃陂南路)에 있던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 사무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독립신문의 이광수가 자신의 사람을 쓰는 바람에 그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다시 무직업자가 되고 만다.

후에 한국의 신문들을 대리하면서 지내던 김시문은 1922년 주위의 도움과 자신의 조그마한 돈을 모아서 샤페이루 213호(霞飛路213호), 현재 화이하이중루 337호(淮海中路337호)에 자신의 이름으로 김문공사란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그때 그 회사의 광고도 독립신문에 내



게 되었는데 취급품목은 주로 중국 수산물, 수정, 안경, 시계, 서양물품 및 양말이었다. 이 가게는 중국이 해방을 맞으며 50년대에 공사 합병될 때까지 30년을 넘게 상하이에서 운영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민족의식이 남달리 강했던 김시문은 독립운동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술한 일화로 후세에 알려지고 있다. 정체불명의 한 한국인이 홍콩에서 상해로 빛을 받으러 왔다가 그의 앞에서 임시정부를 모독할 때 김시문이 그의 목살을 잡아 줄행랑을 놓은 이야기. 20년대에 임시정부의 재정난으로 심한 곤란을 겪을 때 후원회를 조직하여 열심히 참가한 일. <독립신문>이 자금난으로 정간이 되자 경영권을 인수하여 신문을 유지시켰던 일. 그리고 술한 한국인들이 그의 가게를 연락장소와 모임장소로 사용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출입하는 비밀루트로 사용하게 한 일 등이다.

그는 처음 상하이에 오는 한인들에게 안내와 주거를 제공하며 정착을 도왔다. 체포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보아주기까지 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외각지역을 포함하여 상하이는 3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 귀국을 서두르게 된다. 처음 국민당 정부는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던 것이 국내전쟁이 발발하자 한인들의 고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때 많은 한국인들이 상하이에 지체하게 되었는데 그때 김시문의 집을 거쳐 귀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하여 일제가 패망하자 사람들은 김시문을 '한국 총영사' 혹은 '소리 없는 상인 독립군'이란 별명까지 달아주었다.

1949년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이 해방되었지만 김시문도 자국의 혼란한 국내전쟁, 그리고 상해의 벌여놓은 가게 때문에 계속 상하이에 머물게 되었다. 1955년 상하이의 정안공묘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의 묘가 있었는데, 도시개발로 시내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장을 하여야 했다. 냉전의 영향으로 그때만 해도 그 묘의 자상한 신분을 아는 사람이 상하이엔 별로 없었다. 신문에 공고를 내게까지 되었는데 당시에 상하이에 있던 김시문. 선우혁은 신문의 이장공고를 보고 서둘러 힘을 합쳐 이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대장진 공묘를 거쳐 1970년 쉬자후이(徐家匯)의 만국공묘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후에 중한수교를 계기로 1993년 그들의 묘가 대한민국의 국립묘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다.



1866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박병선 지음 / 조울 출판사 펴냄)

서평 : 출판사



고 박병선 박사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병마와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에게 알리려고 했던 병인양요에 대한 기록이다. 전작은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에 약탈되었음을 밝히고 한국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에게 병인양요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펴낸 것이었다면, 이번에 발간한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로즈 제독이 본국 장관에게 보낸 서한(보고서), 프랑스 정부의 공문과 외교문서, 그 당시 참전했던 병사나 학자들이 프랑스로 귀국한 후 쓴 논문, 그리고 그때 기록된 보도 등을 아우르고 있다.

고 박병선 박사는 평소 프랑스에 있는 한국과 프랑스 관련 자료를 꾸준히 수집해 왔다. 나아가 국내 후학들이 이러한 자료에 쉽게 접근하고, 사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사된 옛 자료들을 정서하고 우리말로 번역해 왔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료들의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나 끝을 보지 못한 채 지난 2011년 외규장각 의궤를 고국의 품으로 돌리고 유명을 달리했다. 그러나 그의 강한 집념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이끌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남겼다. 오로지 프랑스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록된 병인양요의 역사적 실체를 생전에 준비해 놓았던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가능한 한 프랑스인의 사고와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책의 출간을 못보고 세상을 떠난 박사는 미리 써둔 글을 통해 “이제 두 나라가 과거의 일을 서로 돌이켜 보고 미처 풀지 못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책이 한 줌의 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염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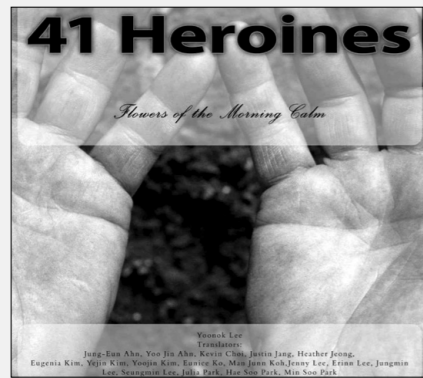
서간도에 들꽃 피다

-영문판<41 Heroines :

Flowers of the Morning Calm>

(이윤옥 지음 / 출판사 CreateSpace 펴냄)

한국일보 기사 발췌



일제강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독립투쟁을 한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한 이윤옥 시집 <서간도에 들꽃 피다>가 드디어 5월 16일 미국에서 번역 출판됐다.

박혜성 홍보대사(미국 보스턴 지역 한국 문화 홍보 프로그램)가 주관하여 미국 교포 고등학생 16명이 지난해 여름부터 이 책의 번역작업에 참여하였는데 드디어 그 열매를 맺은 것이다. <41 Heroines : Flowers of the Morning Calm>

이라는 이름의 이 영문판 시집은 CreateSpace(출판사)에서 펴냈다.

책을 번역한 이는 보스턴을 비롯해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고교생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문화알리기' 모임이다. 2년 전 결성된 이 모임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등 전래동화를 출간한 적이 있고, '초록빛 바다', '과수원 길', '고향의 봄' 등 한국 동요도 영어로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 알리기 전도사인 셈이다. 이씨의 시집을 접한 한인 학생들은 41명의 항일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한 뒤 시를 번역했고, 삽화도 직접 그려 넣었다.

이번 책에는 겨례의 큰 스승 백범의 어머니 곽낙원, 이등박문을 저격한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수원의 눈개 김향화, 황거를 폭격하려 했던 권기옥, 고양 동막상리 만세운동 주동자 오정화 애국지사 등 41명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세계 최대의 책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판매중인데 판매 가격은 18.5 달러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극우파가 득세하여 일제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군 강제 위안부 여성을

모독하는 발언 등 몰염치한 언행이 잇따르고 있으며 아전인수격의 태도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인에 대한 증오감이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억압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려했던 잔 다르크들의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번역출판이라는 큰일을 해낸 교포 학생들은 큰 박수로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한국의 잔 다르크 41명을 영어판으로 소개한 시집 <41 Heroines : Flowers of the Morning Calm>은 아마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또한 이 시집을 통해 전 세계는 일제침략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한국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 도서 구입처 : "아마존" 사이트 (<http://www.amazon.com>)

독립기념관 기증자료 특별기획전 ‘홍사단 100년,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5월 9일 독립기념관 기증자료 특별기획전 개막식에는 독립기념관관장 김능진, (사)홍사단 이사장 반재철, 안창호 후손, 국립대전현충원장 민병원, 충청남도 평생교육원장 송해철, 천안보훈단체장 이하복, 광복회(대전충남연합지부장) 윤석경 등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독립기념관 기증자료 전시관에서 7월 31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는 특히 안창호를 비롯한 홍사단원의 후손들이 기증한 귀중한 원본자료가 87점 전시돼 자료를 통해 홍사단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전시자료는 안창호가 사용한 홍사단 배지와 트로피가 있으며, 안창호가 구상한 독립운동 도표를 통해 홍사단이 독립운동의 기초단계로 창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양동맹회가 홍사단의 국내지부임을 명시한 문서와 홍사단 원동위원부의 부활을 선언한 문서 원본이 최초로 전시된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전시를 관람하며 홍사단의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기증된 자료가 민족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전달되는 소중함을 공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91주기 추모식 및 의암 경영세미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는 5월 19일 오후 2시 의암 손병희 선생의 순국 91주기 추모식과 함께 의암경영연구소가



「손병희의 순국과 대한민국의 성립」이라는 주제로 제10차 의암경영세미나가 주최되었다.

1부 추모식에서는 서울교구 합창송가대의 의암성사 추모가 합창, 헌화 및 분향, 추도사 등이 이어졌고 2부 세미나는 손윤 의암경영연구소 소장이 “손병희 선생의 순국과 유시문의 뜻”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의암경영연구소에서는 “3.1 독립운동을 영도하시고 대한민국 성립과 고국근대화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경영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유시를 이어받아 선생님이 삼전론으로 밝힌 재전, 도전, 언전의 세 가지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한 목적사업을 구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뜻 깊은 날인 5월19일에 진행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2013년 의병학술회의 <한말 항일 무장 투쟁과 대한민국 국군>

5월 22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말 항일 무장 투쟁과 대한민국 국군’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제1주제<한말 일제의 군사침략과 항일의병투쟁의 전개>, 제2주제<한말 의병의 북상도강과 독립군>, 제3주제<만주 독립군의 중국 관내지역 이동과 한국광복군>, 제4주제<해방직후 대한민국 국군의 창군과정과 그 역사성>으로 발제,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나갔다.

박유철 광복회장은 축사에서 “한말 무장투쟁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항일의병의 국외 망명과 만주독립군, 만주 독립군과 광복군의 계승적 역할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과 국군의 역사성에 대한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역사적 맥락의 연결고리를 고찰하고자 한 다수의 전문 석학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병 또한 독립군으로, 독립군은 또 광복군으로, 광복군은 국군으로 이어진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식하고 이를 연구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흥무관학교 10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는 6월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설립 102주년 기념식과 함께 독립운동계의 거목 성재 이시영 선생의 서거 60주기 해가 되어 삶과 투쟁을 되돌아보는 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시영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도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신흥무관학교 102주년 기념식에 이어 2부 성재 이시영 선생의 60주기 추모 학술회의로 진행됐다. 2부 학술회의는 '신흥무관학교와 이시영',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이시영', '해방 정국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 이시영의 정치노선', '해방 이후 신흥무관학교 부흥운동과 이시영'이란 주제로 열렸다. 발표자로는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사학과), 김병기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이계형 연구원(국민대 한국학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봉오동전투 전승 제93주년 기념 국민대회



봉오동전투 전승 제93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대회가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주최로 6월 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역사박물관 강

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군의 무장항일투쟁을 우리 국군의 정통성으로 이어가고, 호국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하였다.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국민의례에 이어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의 연혁보고, 이종찬 이사장의 기념사, 국가보훈처장의 치사, 박유철 광복회장과 신상태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의 축사, 국민대학교 학생대표의 '장군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전쟁과 평화연구소 서인한 박사의 강연(주제 : 홍범도장군의 무장독립투쟁 전략 · 전술), 종로합창단의 축가('날으는 홍범도기'와 '독립군 용진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합창과 만세삼창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주석인 김구 선생 서거 64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을 비롯해 박유철 광복회장, 류근창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독립유공단체장, 광복회원,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고 추모식은

김신 기념사업협회장의 식사(武辭), 국회의장·보훈처장·광복회장의 추모사, 숙명여대 합창단의 추모가, 헌화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구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대일항전을 준비하는 등 27년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든든한 주춧돌로서 항일독립운동에 온 평생을 헌신했다.

8·15광복 후 김구는 국내로 귀국해 반탁운동, 남북연석회의 참가 등 민족이 통일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했지만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2013년 독립정신 산악회 산행 일정안내



2013년도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이호현) 6월 산행은 관악사 삼막사에서 이루어졌다.

매월 1회씩 계속되는 산행에 관한 자세한 일정안내는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을 통해 공지된다.

- ♣ 산행일정 : 2013년 6월22일(토) 오전 10시 30분
- ♣ 산 행 지 : 관악산 삼막사
- ♣ 집합장소 : 관악역 2층 대합실 집합
- ♣ 교 통 편 :
지하철 - 관악역(1호선)하차
버 스 - (지선)5530, 5624, 5625, 6262, 5713
(좌석)900, 5601, (시외)8450
→ 관악역 하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3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 5월 | 6월 | 회원명 | 5월 | 6월 | 회원명 | 5월 | 6월 |
|-----|---------|---------|---------|---------|---------|------|--------|--------|
| 강만길 | 20,000 | | 박은봉 | 30,000 | 30,000 | 이학노 | 20,000 | 20,000 |
| 강재욱 | 20,000 | 20,000 | 박익란 | 30,000 | 30,000 | 이학효 | 10,000 | 10,000 |
| 강찬모 | 20,000 | 20,000 | 박정근 | 30,000 | 30,000 | 이향중 | 30,000 | 30,000 |
| 곽태원 | 50,000 | 50,000 | 박형순 | 10,000 | 10,000 | 이해준 | 20,000 | 20,000 |
| 권경업 | 50,000 | 50,000 | 반병률 | 10,000 | 10,000 | 이화순 | 30,000 | 30,000 |
| 권상윤 | 10,000 | 10,000 | 배해원 | 30,000 | 30,000 | 이호현 | 20,000 | 20,000 |
| 권영관 | 10,000 | 10,000 | 백낙청 | 10,000 | 10,000 | 이후삼 | 10,000 | 10,000 |
| 길사원 | 10,000 | 10,000 | 변병식 | 100,000 | 100,000 | 임재경 | 10,000 | 10,000 |
| 김경애 | 10,000 | 10,000 | 서영훈 | 30,000 | 30,000 | 임진택 | 5,000 | 5,000 |
| 김광림 | 30,000 | 30,000 | 서홍관 | 30,000 | 30,000 | 임형진 | 10,000 | 10,000 |
| 김광재 | 5,000 | 5,000 | 성인제약(주) | 100,000 | 100,000 | 장두원 | 20,000 | 20,000 |
| 김동현 | 10,000 | 10,000 | 신명식 | 10,000 | 10,000 | 장팔술 | 10,000 | 10,000 |
| 김봉현 | 30,000 | 30,000 | 신영연 | 10,000 | 10,000 | 전창일 | 20,000 | 20,000 |
| 김삼웅 | 10,000 | 10,000 | 신영한 | 10,000 | 10,000 | 정동익 | 30,000 | 30,000 |
| 김상백 | 30,000 | 30,000 | 심재권 | 30,000 | 30,000 | 정만기 | 30,000 | 30,000 |
| 김선군 | 10,000 | 10,000 | 양민선 | 10,000 | 10,000 | 정범구 | 10,000 | 10,000 |
| 김성곤 | 10,000 | 10,000 | 양진호 | 10,000 | 10,000 | 정재경 | 10,000 | 10,000 |
| 김성록 | 10,000 | 10,000 | 엄기남 | 10,000 | 10,000 | 정지완 | 5,000 | |
| 김소중 | 10,000 | 10,000 | 염승훈 | 10,000 | 10,000 | 정철승 | 30,000 | 30,000 |
| 김숙정 | 50,000 | 50,000 | 오성근 | 10,000 | 10,000 | 정환기 | 10,000 | 10,000 |
| 김연실 | 10,000 | 10,000 | 오승숙 | 10,000 | 10,000 | 조기식 | 10,000 | 10,000 |
| 김영방 | 10,000 | 10,000 | 오은주 | 20,000 | 20,000 | 조명숙 | 10,000 | 10,000 |
| 김영일 | 10,000 | 10,000 | 오정수 | 20,000 | 20,000 | 조세현 | 10,000 | 10,000 |
| 김용수 | 5,000 | 5,000 | 오학래 | 10,000 | 10,000 | 조원록 | | 50,000 |
| 김원규 | 10,000 | 10,000 | 우상호 | 30,000 | 30,000 | 조용준 | 30,000 | 30,000 |
| 김 위 | 20,000 | 20,000 | 원영애 | 30,000 | | 조인형 | 10,000 | 10,000 |
| 김위현 | 50,000 | 50,000 | 유기수 | 10,000 | 10,000 | 조정훈 | 30,000 | 30,000 |
| 김윤수 | 30,000 | 30,000 | 유은숙 | 10,000 | 10,000 | 조준표 | 10,000 | 10,000 |
| 김자동 | 100,000 | 100,000 | 유원목 | 20,000 | | 주세영 | 30,000 | 30,000 |
| 김재홍 | 10,000 | 10,000 | 유종하 | 10,000 | 10,000 | 주철기 | 30,000 | 30,000 |
| 김재경 | 10,000 | 10,000 | 윤영소 | 10,000 | 10,000 | 차영조 | 10,000 | 10,000 |
| 김정인 | 10,000 | 10,000 | 윤종순 | 5,000 | 5,000 | 천정배 | 10,000 | 10,000 |
| 김종규 | 10,000 | 10,000 | 윤한옥 | 10,000 | 10,000 | 최낙현 | 20,000 | 20,000 |
| 김정록 | 50,000 | 50,000 | 이계환 | 10,000 | 10,000 | 최문성 | 10,000 | 10,000 |
| 김종성 | 10,000 | 10,000 | 이규중 | 30,000 | 30,000 | 최문신 | 10,000 | 10,000 |
| 김종배 | 20,000 | 20,000 | 이두엽 | 50,000 | | 최영진 | 10,000 | 10,000 |
| 김준상 | 50,000 | | 이두희 | 30,000 | 30,000 | 최정식 | 10,000 | 10,000 |
| 김중숙 | 10,000 | 10,000 | 이상준 | 200,000 | 200,000 | 한의석 | 10,000 | 10,000 |
| 김진경 | 10,000 | 10,000 | 이상훈 | | 10,000 | 함세웅 | 30,000 | 30,000 |
| 김진모 | 20,000 | 20,000 | 이상배 | 10,000 | 10,000 | 헤진스님 | 10,000 | 10,000 |
| 김진영 | 10,000 | 10,000 | 이영국 | 10,000 | 10,000 | 홍순권 | 10,000 | 10,000 |
| 김진현 | 50,000 | 50,000 | 이영숙 | 10,000 | 10,000 | 홍용희 | 10,000 | 10,000 |
| 김판수 | 5,000 | 5,000 | 이영후 | 30,000 | 30,000 | 홍승현 | 10,000 | 10,000 |
| 김학근 | 10,000 | 10,000 | 이우재 | 10,000 | 10,000 | 황용만 | 5,000 | 5,000 |
| 김호진 | 10,000 | 10,000 | 이원혁 | 100,000 | 100,000 | | | |
| 김희선 | 10,000 | 10,000 | 이윤옥 | 20,000 | 20,000 | | | |
| 남만우 | 30,000 | 30,000 | 이응국 | 5,000 | 5,000 | | | |
| 노웅래 | 20,000 | 20,000 | 이인석 | 10,000 | 10,000 | | | |
| 노시선 | 30,000 | 30,000 | 이일선 | 30,000 | 30,000 | | | |
| 노영택 | | 20,000 | 이재선 | 5,000 | 5,000 | | | |
| 문재선 | 10,000 | 10,000 | 이정재 | 50,000 | 50,000 | | | |
| 박복삼 | 10,000 | 10,000 | 이종락 | 30,000 | 30,000 | | | |
| 박동기 | 50,000 | 10,000 | 이종찬 | 100,000 | 100,000 | | | |
| 박두근 | | 10,000 | 이창복 | 20,000 | 20,000 | | | |
| 박양수 | 10,000 | 10,000 | 이 철 | 10,000 | 10,000 | | | |
| 박원표 | 50,000 | 50,000 | | | | | | |

2013년 5월, 6월 특별회비

| 회원명 | 5월 | 6월 |
|------------|-----------|------------|
| (주)오토모티오 | 5,000,000 | 5,000,000 |
| (주)아팩철강 | 3,000,000 | 3,000,000 |
| 김 판 수 | 5,000,000 | |
| 홍 소 연 | | 50,000 |
| (주)마운틴고속관광 | | 500,000 |
| KT | | 10,000,000 |

◆ 입 회 원 서 ◆

| | | |
|------------|-----|-------|
| 이름 (한자) | 연락처 | 핸드폰 |
| | | 자택 |
| 생년월일 | 성별 | 남 / 여 |
| 주소 | | |
| 직업 | 소속 | |
| 비고 | | |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 | | | |
|-------|--|----------|---------|
| 은행명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예금주 주민번호 | |
| 이체희망일 |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 출금시작월 | ()월 |
| 납부금액 |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 | |
| |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원) | | |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와 여성독립운동가 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여성독립운동가전시관

1910년 전후 여성들이 주도한 독립운동은 의병전쟁과 더불어 일제의 강제병합에 맞선 가장 큰 항일투쟁 가운데 하나였다. 이 시기 일제침략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살펴보면 일반인부터 학생, 교사, 기자, 종교인, 기생,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항일투쟁기간 애국계몽운동, 3·1독립만세운동, 근우회 활동, 여

학교 동맹휴교, 노동운동 등 여러 분야에 참여하여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으로는 유관순, 어윤희, 권애라, 노순경, 김순호, 심명철, 임명애, 이신애, 신관빈 등이 수감되었다. 근우회 활동으로는 김마리아, 김경애, 신경애, 허정숙 등이 수감되었다. 여학생 동맹휴교로는 김원정, 김진현, 민금봉, 송계월, 이순옥 등이 있다. 이밖에도 노동운동을 주도한 경성트로이카의 이효정, 이병희, 박진홍, 이순금 등이 수감되었다. 이와 같이 서대문형무소는 각계각층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한 여성들 대다수가 수감된 독립운동의 현장이다. 일제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의지를 꺾고자 모진 고문과 탄압을 하였으나, 이들은 감방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등 조국의 해방을 위한 옥중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갔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알리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옥사를 복원하여 2013년 4월 1일 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으로 개관하였다. 항일투쟁기 수많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독립운동가는 현재 170명이 조금 넘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여성애국지사는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부각되지 못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자료 부족과 연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외면 받아오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여성들은 일제의 탄압이 심했지만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힘든 고통을 국민과 함께하였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리 후한 평가를 한다 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여성독립운동가전시관이 현 시점에서 갖는 가치와 위상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범순 할머니에게 온라인 세상 속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kt IT서포터즈와 함께 IT공부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여신 서울풍물시장의 신범순 할머니!
온라인 쇼핑몰로도 전국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와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kt IT서포터즈는 더 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교육으로
따뜻한 스마트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kt IT서포터즈는

2007년부터 시작된 kt의 재능기부활동으로 200여명의 kt직원들로 구성된 IT나눔활동 조직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활동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및 온라인 뉴미디어(SNS/블로그/QR코드 등)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2개 상인연합회(전통시장 37개소/소상공인 8개소)와 MOU를 체결하여
총258회, 1144명에게 재능기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찾아가는 강의신청' www.itsupporters.com 1577-0080

